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6894.23 (+178.82)	▲ 코스닥	827.12 (+4.94)
▼ 금리 (미국 9년)	4.035 (-0.028)	▲ 환율 (한-달러)	1386.85 (+3.55)

사이버캡, 美서 상업운행… 韓 제도보완 시급

(운전대·페달 없는 테슬라 자율차)

‘자율주행 택시’ 韓 운행 과제

美, 무인차 등장 맞춰 기준손질
韓, 요건 충족시 ‘시험운전’ 가능
조건 까다로워, 영업 ‘사실상 불가’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용차 ‘사이버캡’이 미국에서 상업운행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사이버캡과 같은 형태의 차량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도로에서 시험운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운행을 넘어 일반 소비자 판매와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에 이어서려면 완전 무인차에 맞춘 세부 안전·운영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4일 사이버캡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충족 여부에 대한 자기인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3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소수의 사이버캡을 상업운행에 투입했다.

NHTSA는 이후 테슬라에 오는 30일까지 관련 자료와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인증 과정에서 임시 운전장치를 사용했는지, 페달 없는 차량이 제동 관련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다.

미국은 무인차 등장에 맞춰 기존 기준도 손질하고 있다. NHTSA는 지난 6월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기존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제동거리 등 실제 성능 기준은 유지하며 개정 기준이 시행되

기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국내에서도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의 시험운행은 가능하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은 조향핸들과 가속·제동페달이 없는 차량을 B형으로 분류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시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차량 밖에서 대응하는 시험운전자와 안전관리 체계는 필요하다. 무인 시험운행 차량은 원격 정지장치와 멈춘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동제어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마련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은 최소 1만 5000km의 실증 주행실적과 원격관제, 시스템 이중화, 비상시 안전정지 체계 등도 요구한다. 시험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일반 판매나 유상운송까지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험운행지구에서 유상운송을 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기업들도 정부 실증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과 운영체계를 검증하고 있다. 현대차는 광주 실증사업에 투입할 SDV 기반 차량을 공급하고, 현대차·오토모티브에이투지·라이드플렉스는 센서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안전검증과 도로 실증을 추진한다. 확보한 데이터는 인공지능(AI) 학습과 자율주행 성능 개선에 활용한다.

결국 사이버캡과 같은 차량을 국내 도로에서 시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로보택시 영업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근대5종 성승민 ‘대한민국 1호 금메달’

20일 오전(현지 시간) 일본 아이치현 안조시 안조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6 아시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근대5종 여자 개인 결승 레이저런(육상+사격)에서 한국 성승민이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확정짓자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남아 있다. 차량 안전성뿐 아니라 운행지역과 서비스 방식에 따른 안전·운영 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운전자 개입이 없는 차량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관제센터에도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며, 이런 체계가 없으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국고채 30년 ETF 평균 수익률 -24% 채권 개미들 ‘비명’

채권 금리 하락(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던 채권 개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올 2월 말까지만 해도 연 3.5%(국고채 30년)를 밑돌던 채권 금리가 최근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직전거래일(18일) 기준 국고채 30년물을 담은 주요 상장지수펀드(ETF) 5종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23.65%였다. TIGER 국고채30년스트랩액티브가 -32.13%로 가장 낮았고RISEKIS국고채30년Enhanced(-25.53%),SOL 국고채30년액티브(-20.72%),KIWOOM 국고채30년액티브(-19.93%),KODEX 국고채30년액티브(-19.92%) 순이었다.

반면 3년물 ETF인 KODEX 국고채3년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0.32%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10년물 ETF인 KIWOOM 국고채10년은 -4.99%에 그쳤다.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지난해 말 이후 이달 18일까지 각각 약 1.08%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만기 차이가 ETF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같은 기간 30년물 금리는 1.32%포인트 상승했고 ETF 평균 손실률은 -23.65%에 달했다.

채권금리 급상승 손실 ‘눈덩이’
3년물 수익 제자리, 10년물 -5%
만기 길수록 손실을 더 커져

통상 물가가 상승해 ‘돈값’이 하락하면 만기가 길수록 손해를 본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채권이 팔리기 때문이다. 실제 일별 ETF 등락률을 각 만기의 국고채 금리 변화와 비교하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3년물 ETF는 약 3%, 10년물은 약 8%, 30년물은 종목에 따라 약 16~27% 하락한 셈이다. 특히 손실을 상위 두 종목인 TIGER와 RISE의 금리 민감도는 각각 약 27%, 23%로 높았다.

올해 들어 30년물 금리 상승세는 다른 만기보다 가팔랐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KOFIA BIS)의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연 3.26%에서 이달 18일 기준 연 4.57%까지 뛰었다.

초장기 국채 수급에서는 큰 손으로 꼽히는 보험사와 외국인의 매수가 줄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보험사의 잔존만기 약 21년 이상 국채 순매수는 12조212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5% 감소했고 외국인 순매수도 38.5% 줄었다.

이런 가운데 국고채 30년물 ETF 5종에서는 기관이 합산 634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같은 기간 62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metro

m-커버스토리

최고금리 20% 육박… 5060세대, 카드대출 몰린다

카드론 규제강화 ‘풍선효과’

8개 카드사 현금서비스 6.2조
그 중 50대 이상 차주비중 63%
최근 현금서비스 금리 18%대
저신용자 3개월간 19%대 유지

50·60대 중장년층의 급전 수요가 고금리 카드대출로 몰리고 있다. 카드론 규제가 강화되자 현금서비스 잔액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모두 중장년층 비중이 60% 이상을 웃돌고 있다. 대출금리마저 상승세를 보이면서 5060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지난 7월 기준 현금서비스 잔액은 7조 251억원이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결제성 리빙핀 잔액은 6조 8759억원으로 4개월 연속 늘었다.

중장년층의 수요가 특히 두드러졌다. NH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 2397억원으로, 그 가운데 50대 이상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63.1%다.

금융당국의 카드론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장년층의 급전 수요가 현금서비스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실제 카드론 잔액은 지난 5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뒤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문제는 줄어든 카드론에서도 중장년층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7월 기준

카드론 잔액 중 5060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달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잔액 모두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에 집중된 셈이다.

중장년층에 카드론 수요가 집중돼 온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면서 이들의 상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카드론 금리는 오피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87%다. 이후 8월에는 14.07%, 이달에는 14.10%까지 올랐다.

현금서비스 금리는 더 높다. 같은 기간 현금서비스 금리는 18.11%에서 18.16%, 18.18% 수준까지 올랐다. 젊은층보다 소득 여력이 약한 중장년층이 법정최고금리(연 20%)에 근접하고 있는 금리를 감당하면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도까지 낮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신용점수가 700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최근 3개월 내 19%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19.11%까지 올랐다. 지난 5월(19.15%) 이후 최고치다.

한편, 5060의 급전 수요는 보험업계에서도 파지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대형 생·손보사 8곳의 보험계약대출잔액은 47조9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이 빌린 대출잔액은 각각 4.5%, 10.2% 증가했다. 반면, 다른 연령층의 대출 잔액은 모두 감소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동훈 “與, 김승원 추가 의혹 제보 언제 받았나…제보자도 보복할 건가” /사진 뉴시스
▲‘아빠찬스’ 논란 前선관위 사무총장 딸, 임용취소 불복 소송 승소

▲조국 “친명,李大統領 SNS 취지 따라 ‘멸칭·갈라치기’ 정치 즉각 중단해야”
▲김민석 “野 제기 개헌 걸림돌 정리…진지한 개헌 논의 전환할 때”

▲대미투자 국회 보고 21~22일 추진…李 강조 ‘상업적 합리성’ 확보 주목
▲최혁진, 조국 거남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대통령 흔들어대는 일 없길”

“AI·제조·안전’ 경쟁력 결합해야” 글로벌 모빌리티 ‘톱3’ 해법 제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GX 중심 산업 발전방향 논의
국제표준·친환경 등 핵심이슈 진단
모빌리티 안전 보장 플랫폼 구축 제안

우리나라가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Top 3’를 하기위해선 미국식 인공지능(AI) 주권, 중국식 제조·배치 속도, 유럽식 안전·표준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기사 L7·L8> 특히 자동차 등 모빌리티를 잘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과 ‘표준’ 경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향후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 분석이다.

물류 분야에선 운송 등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나왔다.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지속가능한 물류·모빌리티’를 주제로 연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기조강연자로 나선 하성용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교수 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은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모든 산업은 넘버원(1등)만 살아남는 독과점 구조로 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리가 이들 나라에 기술이나 서비스가 종속될 수 있는 운명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모빌리티 혁신의 본질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뀌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차를 잘 만드는 국가에서 업데이트가 안전하고 스스로 운행하며 에너지·도시와 연결되는 이동체계를 설계하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국내 모빌리티 제조사, 플랫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개선을 통한 ‘실증’만으론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하 교수는 “몇 km 실증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몇 명이 매일 이용하고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빠르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하다. 상용화를 위해 비포어(before)가 아닌 애프터(after) 단계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기서 또다른 핵심은 국산화 비중보다 외국의 유용한 자산도 한국형으로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제도 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모빌리티 산업에서 ‘안전’은 중요한 키워드다. 배터리가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배터리는 주행거리보다 수명, 안전의 총 비용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업들의 반

복투자를 줄이고 한국형 검증자산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국가 Mobility Safety Assurance Platform’ 구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번째 기조강연자로 나선 박민영 인하대 이태물류학부·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물류분야에 ‘Robotics(Robot+Logistics)’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제품의 입고·출고, 보관, 이송, 피킹, 분배, 포장 등에서 이미 다양한 로봇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과 물류의 경계가 파괴되고 물류사업의 진입 장벽이 강화되는 등 ‘Big Blur 시대’도 왔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물류산업에서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다. 그러나 제조, 유통, 무역의 종속산업이었던 물류산업이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영역도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AI전환과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안전,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같은 보전 등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송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DX부문 핵심 경영진 총출동 AI·로보틱스 사업비전 공유

삼성전자 ‘테크 포럼’

노태문 DX부문 대표 등 80여명 참석
“AX 전환기 이끄는 선도기업 도약”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핵심 경영진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총출동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앞세운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 개별 기기를 넘어 일상 전반에 AI를 확산해 인공지능 전환(AX)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에서 ‘2026 테크 포럼’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노태문 DX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이원진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 윤장현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 최원준 모바일경험(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리더급 개발자 등 참석자는 80여명에 달했다.

올해 8번째를 맞은 테크 포럼은 삼성전자 경영진이 글로벌 개발자에게 주요 사업 방향과 연구 분야를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사다. 올해는 AI가 스마트 기기에서 로봇과 일상 공간으로 확장되는 흐름에 맞춰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방향과 사업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노 사장은 “AI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소비자의 일상이 이뤄지는 모든 공간에서 지능화되고 초개인화된 경험을 구현하고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최고의 AI 경험을 제공하는 동반자가 됨으로써 AX 전환기를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2026 테크 포럼’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제시한 전략은 스마트폰이나 TV 등 개별 제품에 AI 기능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여러 기기와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AI 경험을 구축한 뒤 이를 로봇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윤 사장은 “미래를 선도하는 삼성전자의 AI”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차세대 AI 기술과 로보틱스의 결합이 가져올 변화를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AI 전략을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동시에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DX부문에 챗GPT와 제마나,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를 도입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마케팅, 지원 업무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으며 전 관계사 임원 2300여명을 대상으로 AI 교육도 진행했다.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의 AI 개발자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일하는 방식까지 혁신하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AI와 로보틱스 비전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평화도 경제도
파주로!

함께 달리고, 함께 즐기고!
다시 뛰는 파주개성인삼축제

PAJU

제21회 대한민국 최고 6년근 인삼

파주개성 인삼축제

2026.10.17.(토)~10.18.(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

주최 파주시
주관 파주개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

생활고에 창업·투자 실패까지… 빛에 무너지는 중장년 노후

m-커버스토리

고령층 소득 기반 취약

개인파산 신청 83% 50대 이상 60대 비중 36.5%로 가장 높아
채무 원인 1위는 '생활비 부족'
재파산자 10% 넘어 재기 어려워
전문가 "무리한 창업·투자 경계"

중장년층의 고금리 빚 증가로 노후 파산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채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상황 여력이 떨어지면서 고령층 취약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지난해 중장년층 파산 비중 83%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건수는 총 1192건으로, 50대 이상 신청자가 전체 83.1%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6.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25.1%, 70대 이상이 21.5%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로, 특히 60대 이상 무직 비율은 88.2%로 집계됐다. 일자리가 있다라도 상당수가 일용직이나 단기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경기부진, 고금리 장기화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차주들이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Chat GPT가 생성한 노후 파산 관련 이미지.

지했다. 이 가운데 질병과 입원 등이 영향을 미친 사례는 30.2%로 지난 2023년 대비 5.9%포인트(p) 증가했다.

파산 신청자 가운데 한 차례 파산을 겪은 뒤 다시 파산 절차를 밟는 '재파산자' 비율은 10.6%를 넘어섰다. 이들 중 상당수는 60대 이상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재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 프랜차이즈·무리한 투자 등도 원인

현장에서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중장년층이 생계를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섰다 파산에 내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퇴직금 등 노후 자금을 활용해 가게를 열었다가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해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이 많다는 것이다.

충분한 금융 지식 없이 무리하게 투자에 나서는 점도 중장년층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 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했다가 손실을 입으면서 채무 부담이 커지는 경우다.

이 외에도 주식 리딩방이나 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종 사기 등에 노출돼 자금을 잃는 사례도 상당수라는 설명이다.

실제 회생·파산 관련 분야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노후 파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활용해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하거나 금융 지식 없이 무리하게 투자하려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 노후 파산 막으려면 '무리한 투자' 경계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은퇴 이후 무리한 창업이나 투자 결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인회생·파산 분야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특히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프랜차이즈를 차려 자영업에 시작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완전히 다른 업종인데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공공기관의 금융·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금융복지 종합상담과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

조정 상담 및 접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교육과 재무관리 교육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긴급 복지 등 복지서비스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등도 제공한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서울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 지원 및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업한 중장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도 마련돼 있다. 재도전 특별자금을 비롯해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이 대표적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산불이 삼킨 온실가스 감축분 지난해 순배출 310만톤 증가

총배출량은 전년보다 0.9% 감소
산림 흡수량 22.8% 급감 영향
2030 NDC까지 1.5억톤 추가 감축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수송과 산업 부문의 감축에 힘입어 소폭 감소했으나, 대형 산불 여파로 산림 흡수원이 크게 훼손되면서 최종 '순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협정에 따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1억 5000만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 산불 한 번에 날아간 감축 노력… 총배출 줄어도 '순배출'은 증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총배출량은 6억 8571만톤으로 전년(6억 9181만톤) 대비 610만톤(0.9%) 감소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산림 및 토지 분야의 흡수량이 3103만톤에 그치며 전년 대비 22.8% 급감했다.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바이오매스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만 830만톤이 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총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은 6억 5470만톤을 기록, 전년 대비 310만톤(0.5%) 오히려 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과 수송, 농축수산 및 폐기물 부문은 배출량이 줄어든 반면, 전력과 건물, 냉매 부문은 증가세를 보였다.

수송 부문은 배출량 9459만톤으로 전년 대비 2.9% 줄어들며 감축 폭을 키웠다. 경유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24년 910만 1000대에서 2025년 860만 4000대로 줄어 들고, 전기·수소차(72만 2,000대→94만 4,000대) 및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늘면서 경유 사용량이 6.1% 급감한 영향이다. 산업 부문 역시 2억 4293만톤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철강(조강 생산량 -2.2%), 석유화학(기초유분 6종 -2.3%), 시멘트(출하량 -12.8%) 등 대배출 업종의 생산 감소가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력 부문은 2억 2043만톤으로 전년 대비 0.2% (40만톤)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크게 늘었음에도, 원전 예방정비·정지일수 증가(2096.1일→2239.6일)로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2.2% 늘린 탓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Fighting!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美, 매출 69% 차지… SK하이닉스, 국제경영 전문가 영입

서진우·유정준·이형희 부회장 합류
기술 인재 중심서 국제경영 보강

지난해 ‘매크로 리서치 센터’부터
美 ‘글로벌 인프라’ 등 조직 신설

SK하이닉스의 인재 영입의 무게추가 ‘기술통’에서 국제경영 전문가로 넘어지고 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나오는 가운데 현지 사업까지 확대되면서 복잡해진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할 인재를 필요해진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진우·유정준·이형희 SK그룹 부회장이 SK하이닉스에 합류했다. 서 부회장은 중국 사업을, 유 부회장은 미주 사업을 이끌어왔으며 이 부회장은 그룹 내 대외협력과 해외 사업을 맡아왔다.

앞서 지난달에는 국제금융 전문가인 정여진 전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총괄과장을 커뮤니케이션총괄 산하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정 부사장은 기획재정부 외환제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SK하이닉스

도과장과 외화자금과장 등을 거쳤으며 SK하이닉스에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대응 업무를 맡고 있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기술 인재를 중심으로 임원을 발탁해왔다. 지난해 말 단행한 2026년 정기인사에서도 신규 임원 37명 가운데 약 70%를 주요 사업·기술 분야에서 발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경영 역량까지 보강하고 있다.

◆조직부터 달라졌다…거시경제·지정학까지 분석

변화는 조직에서도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매크로 리서치 센터(Macro Research Center·MRC)를 신설했다. MRC는 글로벌 거시경제와 산업·기업, 지정학 이슈를 분석해 AI반도체 사업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는 ‘글로벌 AI 리서치센터’를 만들었고 미국 인디애나 생

산기지 구축을 전담할 ‘글로벌 인프라’ 조직도 신설했다. 기술 개발과 생산에 집중했던 조직에 글로벌 시장과 해외 생산에 대응하는 기능을 보강한 것이다.

◆매출 68.9% 미국…판매 넘어 투자·생산으로

배경에는 커진 미국 사업 비중이 있다.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고객 대상 매출은 66조8851억원으로 전체 매출 97조1467억원의 68.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미국 사업은 제품 판매를 넘어 생산과 투자로 넓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파엣에서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HBM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착공식을 열었다. 2029년 하반기 차세대 HBM 양산이 목표다.

미국 내 메모리 생산도 검토 중이다. 로이터는 지난 16일 SK하이닉스가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일부를 활용하거나 인텔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I 분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SK하

이닉스는 미국에 AI 전문 투자 조직을 설립하고 최대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8일에는 실리콘밸리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브랜드 ‘SK하이닉스 벤처스’를 출범시켰다.

특히 같은 날 자회사 솔리다임이 미국 동부에 낸드 생산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지역과 투자 규모,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 사업이 제품 판매에서 현지 투자와 생산으로 넓어진 점도 SK하이닉스가 국제경영 인재를 보강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기술 인재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R&D)에 6조428억원을 투입했다. 전년 동기보다 98.4% 늘어난 규모다.

곽노정 SK하이닉스 CEO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 당시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오가노이드, 연구실 넘어 실제 신약개발·치료 전환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ODC26’
글로벌 협력·규제 혁신 지원 약속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개최한 ‘ODC26 - 연구를 넘어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는 전환’ 오가노이드 개발자 콘퍼런스(Organoid Developer Conference 2026)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7~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텍플렉스에서 열린 8번째 ODC2026은 오가노이드 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실제 신약 개발과 치료 현장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국내외 연구자와 기업·규제 전문가, 환자와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큰 관심을 이끌었다.

행사 첫날인 17일에는 ▲오가노이드 표준화와 품질관리 ▲재생의료와 임상 적용 ▲첨단대체시험법(NAMs)의 검증과 규제 수용 ▲AI·장기칩 기반 차세대 연구



지난 17~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텍플렉스에서 열린 8번째 ODC2026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플랫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세션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오상훈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정에 국회의원, 박정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회장, 엘리자베스 빈칸(Elizabeth Vincan) 멜버른 의대 교수가 축사에 나서 ODC26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했다. 주요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오가노이드 기술이

국가 바이오 안보 및 차세대 신약개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협력과 규제 혁신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세계 최초로 유도만능줄기세포(iPS) 유래 세포 이식 임상연구를 이끈 다카하시 마사요(Masayo Takahashi) 비전케어 대표의 기조강연은 오가노이드의 품질을 사용 목적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전달했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오가노이드 기술이 실제 환자에게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주제로 한 세션들이 이어졌다. 닉 바커 싱가포르 A*STAR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연구 디렉터가 장 줄기세포와 위장관암의 기원 연구를 공개했다.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연구단장이 유전체 교정과 성체 오가노이드를 결합한 바이오뱅크·신약스 크리닝 연구를, 레나 스미르노바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뇌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발달신경독성 평가와 규제 적격화 연구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망막색소변성증(RP)을 중심으로 환자와 의료진, 연구개발자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세션 ‘치료를 만드는 환자들’이 열렸다. 엔테테이너 이동우, 최정남 싱클레티바이오텍 대표(한국실명퇴치운동

본부 회장) 이준원 강남세브란스 교수·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치료제 개발과 환자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폐막 기조강연은 토마스 하르통 교수가 말아AI와 오가노이드가 그릴 신약개발의 다음 10년을 전망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8회를 맞이한 ‘ODC26’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오가노이드 분야 전문 콘퍼런스로 오가노이드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 산업화·동향 및 비전을 매년 공유하고 있다. 국내 행사를 넘어 ASEAN 지역 콘퍼런스 등으로 범위를 넓히며, 과학 기술을 윤리적·문화적 시각과 결합하여 바이오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과 공유하는 ‘문화적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오가노이드가 연구실을 넘어 실제 신약개발과 치료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번 ODC26을 통해 한층 뚜렷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metro

사우디 수도 덮친 후티 공습… 석유시설 불길·항공편 차질

예멘 정부군, 후티반군 12명 사살
이란, 美에 전쟁 종식 전제조건 제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 친이란 세력인 후티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사우디 국영석유기업인 아람코의 연료탱크가 불길에 휩싸이고,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도 화염·연기가 솟구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편 결항이 속출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19일(현지시간) BBC방송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 민방위국은 18일 밤부터 19일 오전까지 수도 리야드 전역을 비롯한 주변 여러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7월 후티가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리야드에 발령된 최초의 경보다.

폭발음 신고는 곳곳에서 보고됐다. 당국은 위험 상황이 종료됐으며 경보를 해



16일(현지시간) 예멘 후티 대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소속 F-15 전투기 잔해 앞에 모여 있다. /AP·뉴시스

제했으나, 그 직후 킹칼리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가둥이 목격됐다. 항공기 정보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 24는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다수의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운항 차질지수가 최고 수위인 5.0에 달했다고 했다.

또 AFP에 따르면 공항 인근에 자리한 아람코의 석유탱크에 화재가 발생했다. 통신은 소방대원들이 아람코 로고가 표시

된 탱크에 옮겨 붙은 불을 진화 중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 후티의 아히야 사리 대변인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 영토에 두 차례 군사작전을 단행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는 “첫 번째 작전은 리야드 내 민감시설을, 두 번째는 안부에 있는 아람코 시설을 겨냥했다”며 “예멘에 대한 사우디의 봉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우디의 군사시설을 조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 정부는 공격 주체가 누군지 등 이번 피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후티는 최근 예멘 서부 주요 거점인 모카함을 점령했다. 이어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페림 섬까지 장악했다. 또 사우디 안부의 아람코 석유 시설과 카미스 무사이트 공군기지도 미

사일 및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

이에 이슬람성지 메카와 사우디 제2도시 제다에 이어 리야드까지 경보를 발령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예멘 정부군은 북동부 마리브주에서 침투를 시도하던 후티반군 1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예멘 정부군은 19일 낸 성명에서 방어 진지를 뚫고 들어오려던 후티반군과 교전해 이 같은 전과를 냈다고 전했다.

사우디도 반격에 나섰다. 예멘 타이즈주·하지주 내 반군 진지, 통신시설 등에 공격을 가했는데, 후티를 상대로 중국제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쓴 정황도 드러났다.

후티는 지난 16일 예멘 마리브주 상공에서 사우디의 F-15 전투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는 주장도 내놓은 바 있다. 후티와 사우디 간 무력분쟁 격화로 주변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무장관은 “사우디에 군사적 지원이 일부 필요할 수 있다”며 “파키스탄과 체결한 3자 방위협정

틀에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우디가 미국-이란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교전 종식을 위한 제안들을 당사자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전제조건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모흐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종전을 위한 선결 과제를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카타르 알자리라방송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조건에는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해상봉쇄 해제 등이 포함됐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카타르·파키스탄 등 중재국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예멘 간 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1960년대 한 기업가의 말입니다

저망고희망은
르르의의
도저이아티며이다
은의표짓는이다
소비다디집트
는바구워브스
저망고희망으로
르르의의로
바글수있다

김승원 사퇴 후폭풍… 與 지지율 반전 노리고 野 책임론 부각

추석 명절 정국 주도권 차지 신경전
與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논란 정리”
野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실패”

‘신약 청탁 의혹’ 등 여러 논란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추이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일 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서로를 향해 공세를 가했다. 이를 통해 추석 명절 전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인사 논란으로 가라앉은 당정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주력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내밀한 수사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며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 의원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야권이 제기해 온 ‘연임 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했다. /뉴시스

헌’과 ‘공소 취소’ 논란도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임 논란에 대해선 “연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고, 공소 취소 논란도 “(국회는) 불필요한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

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사퇴를 정 부여당의 인사검증 실패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명절 밥상에 정부의 각종 실정을 주요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당장의 화살을 피하고 있을 뿐, 재경부 이형일, 국토부 홍지선, 모두 부적격자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과 조세정책까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사들만 골랐다”며 “그래놓고 검증까지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했다.

특히 인사 검증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누가 이런 엉터리 개각을 주도했는지 묻고 있다”며 “‘만사현통’ 김현지인가’라고 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을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인사 참사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SNS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핵심 국무위원 후보 2명이 연달아 낙마했다. 이진숙, 강선우, 이혜훈 후보까지 더하면 벌써 5명째”라며 “처참히 무너진 이재명정권 인사 시스템, 대국민 사과와 김현지 등 인사·민정 라인 전면 경질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

구했다.

여야의 이 같은 행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실시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0%, 국민의힘은 27%로 나타났다.

다만 이 지지율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이후 여론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 결국 민주당은 분위기를 반전시켜 당정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지, 국민의힘은 여권의 악재를 당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걸려 있는 셈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용혜인·김승원 이어… 국힘, 강신철 정조준

강신철 후보자 도덕성 집중 조명
민주 “국회서 정책으로 경쟁하라”

용혜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사퇴와 별개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와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추석을 앞두고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여론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절 민심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며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경쟁하라고 맞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강신철 후보자와 가족의 철거민 아파트 특별 공급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입장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

보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강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스스로 ‘정권 안보용’ 장관임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강 후보자의 대북 인식과 사관학교 통폐합, 조기 전사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입장 등을 언급하며 “강신철이 아니라 ‘간신철’, ‘간신철거민’”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후보자와 부친, 형이 잇따라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보상’이라던 후보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 말이 없다”며 “철거민의 몫을 가져간 사람에게 국민의 인위를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소지 관리와 재산 신고 누락에 대

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아파트 특별공급은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사퇴와는 별개로 이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고리로 한 대야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 기간에 후보자가 사퇴해도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은 이게 왜 계속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재명 정부 실정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추석 이후 장외투쟁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든 갈 수 있게 준비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민보고대회와 장외투쟁 추진을 정쟁으로 규정하며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명절 밥상 민심을 듣겠다면서, 그 민심을 듣기도 전에 할 말과 낱씨를 먼저 정해둔 것인가”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여는 자리는 경청인지, 동원을 위한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국민보고대회의) 명분도 사라졌다. 그런데도 장

외집회를 고집한다”며 “애초부터 민생은 후순위였고, 정치적 공격이 1순위며 명분은 적당히 붙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울러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 있으면 국회에서 하라”며 “국회로 돌아와 민생 법안을 처리하라. 추석 밥상에 올릴 것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말했다.

정차권 전문가는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의 명분과 효과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외투쟁은 나가는 쉬운데 들어오기가 어렵다”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번 청문 정국은 사실 한동훈 의원의 승리지, 국민의힘의 승리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외투쟁이 국민의 호응으로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누가 그 당을 이끌고 당의 얼굴이 되느냐가 그 당의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 의원과의 연대와 복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3500억달러 대미투자 첫 사업 국회 보고

수익성·원전·LNG 쟁점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첫 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를 오는 21~22일 추진한다.

이번 보고에서 투자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한미간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설치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및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 등 세부적인 협상 안이 공개될 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1200억 달러 규모로 거론되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 노형을 먼저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간 타협점을 찾았을 지도 관심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 투자 프

로젝트를 21일 또는 22일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와 규모,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확보 등 대미 투자 막판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보고 일정을 늦춘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대미 투자액) 어떻게 회수할지,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 보고에서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부담 등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이 제시될 지가 최고 관심사다.

1호 사업으로는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 복합화력발전소가 거론된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223억 달러가 투입돼 가스 터빈발전 1.4GW(기가와트), 가스복합발전 5GW 등 6.4GW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I-SPV, PPA,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PA와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 참여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해 구매 계약 등을 우선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협상에서 이를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호 사업으로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한수원의 APR-1400 노형을 최소 2기 이상 포함하되, 우선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미국이 자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중심으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에 난기류가 생겼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인수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약 15%를 확보하고 이사회에 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5~10% 수준의 소수지분만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 기업가치 150억~200억 달러를 단순 적용하면 지분 15%의 가치는 22억5000만~30억 달러로, 한화 약 3조~4조원에 달한다. 투자 규모가 큰 만큼 한국 측이 직접 지명하는 이사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을

지 여부도 관심이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km를 옮긴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44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그동안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 후속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건 및 사업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미국 장기 국제금리 상승이 상업적 합리성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장기 국제금리는 원리금 상환이자율의 기준이 되는데 지난해 11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을 때 연 4.73% 수준을 보였던 미국 20년물 국제금리는 5.40%까지 올랐다.

/뉴시스



2026년 SK의 생각입니다

AI시대불안과기대는
도저히아티며이다
은니표깃면이다
소비다디치드
노아구구비스
불안은기대도
비관수이다

SK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4% 국고채 ‘동결 시그널’… 한은, 내달 기준금리 결정 시험대

(3년물·10년물 금리)

美·日 기준금리 인상

환율 1380원대, 물가 상승률 3.1% 韓,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지만 채권금리 4%대, 기준금리보다 높아 일각, 내달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

미국과 일본이 같은 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선택이 복잡해졌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에 머물고 물기도 목표 수준을 웃도는 점은 추가 인상을 서두를 근거지만, 국고채 3년·10년물 금리가 이미 4%대로 올라 한은이 움직이지 않아도 국내 금융여건이 긴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엇갈린 금리차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점도표를 제출한 연준 위원 18명 중 16명은 연내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을 전망했다.

일본은행(BOJ)도 지난 18일 정책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올렸다.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새 금리는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왼쪽부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뉴시스



한국 기준금리(3.0%)와 비교하면 한미 금리차는 하단 기준 0.75%p, 상단 기준 1.00%p다. 일본의 인상 결정이 적용되면 한일 금리차는 2.00%p에서 1.75%p로 좁혀진다.

다만 금리차만으로 원화 가치나 한은의 결정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제 BOJ가 금리를 올렸는데도 엔화는 추가 긴축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 명의 반대표가 부각되며 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18일 기준 1383.3원에 마감했다.

한은이 살필 부분은 대외 금리 변화가 환율과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식료

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3.4% 올랐다.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포함돼 수치 전체를 기초적 물가 압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원화 약세와 국제유가가 수입물가로 반질 위험은 남아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위 직후 금통위원회의 조건부 6개월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이 3.25%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있을 회의는 다 라이브”라고 밝혔다.

두 차례 연속 인상의 파급효과를 확인 하되 향후 지표에 따라 매 회의에서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점도표 역시 추가 인상의 시기나 횟수를 보장하는 약속은 아니다.

환율의 일방적인 상승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만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BOJ 결정 전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을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된 데다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달러 공급이 중기적으로 원화를 지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BOJ가 높인 ‘금리 바닥’

일본의 금리 인상은 한일 금리차 축소보다 글로벌 장기금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초저금리는 세계 금융시장에 쏜 자금을 공급해 주요국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어가면 이 같은 힘이 약해져 세계 장기금리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정성태 삼성증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리의 하단도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은 BOJ의 최종금리 전망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이고 2027년 세 차례의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이 경우 한국 국고채와 금융기관 조달금리에도 상방 압력이 남을 수 있다. 한은이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채권금

리와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국내 금융여건을 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4.035%, 10년물은 연 4.466%에 마감했다. 당일에는 각각 2.8bp(1bp=0.01%포인트), 4.0bp 하락했지만 기준금리보다 각각 1.035%p, 1.466%p 높다. 정부도 지난 17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자주의 상환 부담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10월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1일 보고서에서 8월 인상을 “선제적 대응 성격의 연속 인상”으로 평가하며 “10월에는 정책 효과를 점검”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관건은 이후 나온 연준과 BOJ의 결정, 9월 물가와 환율 흐름이 이 같은 전망을 바꿀 정도인 지다. 물가 오름세와 원화 변동성이 이어지면 10월 인상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와 내수를 충분히 제약한다면 10월에는 연속 인상의 효과를 확인한 뒤 11월 이후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강남 출퇴근 쉽지만, 30억 ‘자금마련 변수’

(84㎡ 분양가)

부동산 현장 르포

‘더샵 분당하이스트’ 홍보관

지하 4~26층, 17개 동에 1149가구 한층 정자역 도보 10분 ‘더블역세권’ “실거주 수요자에 부담스러운 가격”

지난 18일 문을 연 ‘더샵 분당하이스트’ 홍보관. 견본주택 유닛 없이 단지 모형도와 타입별 평면도, 커뮤니티 시설 안내 등이 마련됐다. 두 가지 타입은 가상현실(VR)로 세대 내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방문객들은 VR 영상과 입지 설명을 보고 분양 관계자에게 질문하며 단지 조건을 꼼꼼히 살폈다. 홍보관 안쪽 분양 상담석은 일찍 채워졌다.

더샵 분당하이스트는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한 교통 입지와 분당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만 전용 84㎡ 기준 최고 30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는 고민거리다. 특히 내년 말 입주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자금 마련 여력이 계약을 좌우할 변수로 꼽혔다.

더샵 분당하이스트는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를 4단지 리모델링하는 단지다. 기존 16개 동, 1006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26층, 17개 동, 1149가구로 탈바꿈한다. 늘어난 14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66㎡ 52가구, 74㎡ 19가구, 84㎡ 72가구다.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정자역이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이다. 신분당선을 타면 판교역까지 한 정거장이며 강남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더샵 분당하이스트’ 홍보관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성채리 기자

홍보관에서는 단지 모형도와 가상현실(VR) 화면으로 동 배치와 내부 구조를 살펴볼 수 있었다. VR로 확인할 수 있는 주택형은 66㎡A1과 84㎡A6-1 두 가지였다. 같은 전용면적 안에서도 세부 타입이 다양해 면적뿐 아니라 내부 구조와 동별 위치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분양 정보에 따르면 이번에 분양하는 세대는 모두 방 3개와 욕실 2개로 구성되며 최상층은 다락방이 포함된다. 안방과 자녀방의 불박이장 등 가구와 주방 가전 제품 등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한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1.66대 수준으로 넉넉히 확보하고, 기존보다 주차구획 폭도 넓힌다는 설명이다.

이날 가족과 함께 홍보관을 찾은 홍모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자녀의 직장 가까운 분당으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며 “원래 분당 쪽에 관심이 있었고 서울을 오가기 좋은 교통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분양가를 처음 듣고 너무 비싸서 놀랐다”며 “최근 금리도 많이 올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홍씨는 자금 부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로 가격이 낮은 전용 66㎡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샵 분당하이스트의 전용면적별 최고 분양가는 ▲66㎡ 21억6300만원 ▲74㎡ 24억200만원 ▲84㎡ 29억8100만원이다. 국민평형 분양가는 30억을 바라보고 있으며 가장 작은 일반분양 면적인 66㎡도 모든 타입이 20억원을 웃돈다.

정자역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청약은 잘될 것 같지만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내년 말 입주라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관심을 보였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강남에서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는 사람도 있다”며 “실거주를 하려는 수요자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전했다.

더샵 분당하이스트 청약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해당지역, 23일 1순위 기타지역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10월 2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이뤄진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성채리 기자 cr56@

현대건설, 올해 도시정비 수주 10조 돌파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등 수주

현대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울산 ‘남구 B-01구역 재개발사업’,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잇달아 확보했다.

공사비는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사업 5463억원, 울산 남구 B-01구역 재개발사업 7110억원,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사업 5001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0조 1180억원이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지하 7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총 405가구와 부대복리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서울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여의도샛강생태공원과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등 녹지·수변 공간도 인접해 있다. 현대건설은 버드나무를 뜻하는 ‘윌로우(Willow)’에 조합원 168명만을 위한 고유한 가치를 담아 ‘윌로우 168’을 단지명으로 제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0조원을 넘어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브랜드와 설계·상품, 금융, 사업관리 역량을 결합한 종합 경쟁력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압구정3구역 및 압구정5구역 재건축,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안양 충훈부 일원 공공재개발 등을 잇달아 수주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위, 추석 명절 ‘보이스피싱’ 주의보

택배·선물배송 악용 스미싱 증가

금융당국이 선물 배송과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추석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주요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도 공개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전후 주의해야 할 주요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을 안내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도 내놨다.

먼저, 금융당국은 추석 명절에는 택배·선물 배송과 차량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악용한 스미싱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소지 오류, 택배 배송 불가, 범칙금 미납 등 내용과 함께 가짜 URL

(인터넷주소)이 첨부된 경우, URL에 연결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범칙금 등의 안내를 받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문자메시지 내의 URL을 클릭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또는 전화 번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악성앱 설치 사전 예방을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휴대폰 설정을 통해 미리 설치를 차단하고, 이미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하고 근처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을 방문해 악성앱 삭제, 휴대폰 초기화 등 조치를 받으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투싼, 6년만에 완전변경... 디자인·AI·전동화 등 전 영역 혁신

현대차 '디 올 뉴 투싼' 공개

차체 확대... '아트 오브 스틸' 적용
헤드룸 등 실내 거주성 대폭 개선
동급 최초 '기억 후진 보조' 도입

"다양한 일상을 함께하고 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든다는 현대차의 의지를 담은 결과물이다." (윤호준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윤호준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이 현대차의 5세대 '디 올 뉴 투싼'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투싼은 다양한 오프로드의 일상을 함께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모델로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게 재설계됐으며 차체 크기 확장부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첨단 인포테인먼트까지 전 분야에서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 올 뉴 투싼을 최초로 공개했다. 신형 투싼은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인 '아트 오브 스틸'을 바탕으로 강인한 외관을 구현했으며, 여유로운 공간과 정숙한 승차감을 확보했다.

신형 투싼은 이전 모델 대비 여유로워



현대차가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 CJ ENM 스튜디오 센터에서 '디 올 뉴 투싼'을 공개했다.



/양성운 기자

진 공간과 정숙한 승차감을 강화했다. 전장(60mm), 휠베이스(30mm), 전폭(40mm)이 늘어나며 체감을 넘어서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2열 레그룸(1064mm)과 헤드룸(1031mm)을 크게 늘려 동승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고, 라기지 적재 공간도 추가 확대했다. 2열 도어 개방 각도 역시 기존 73도에서 83도로 넓혀 영유아 카시트 설치나 큰 짐을 싣고 내리는 부담을 최소화했다. 차체 확대와 함께 패밀리카로서 실내 거주성을 강화한 것이다.

주행 감성 면에서는 전문 서스펜션과 차체가 연결되는 부위의 강성 증대와 후륜 댐퍼 보강 스티어링 적용을 통해 노면 진동을 대폭 개선, 한층 안락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구현했다고 고 회사는 설명했다. 동력계의 핵심은 단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파워트레인

은 1.6터보 가솔린과 1.6터보 하이브리드로 구성된다.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193마력, 최대토크 27.0kgf·m를 발휘한다. 기존보다 출력이 13마력 높아졌으며 8단 자동변속기가 조화됐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시스템 최고출력 245마력, 복합연비 17.4km/l의 뛰어난 효율성을 확보했다.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감속 구간을 예측하는 '관성 주행 안내'와 정차 중 전기차처럼 공조-인포테인먼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 모드'도 적용했다.

안전 사양도 강화했다. 충돌로 메인 전원이 차단돼도 도어 잠금 해제를 지원하는 '도어 언락 전원 이중화'를 처음 적용했고,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와 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2를 전 트림에 기본화했

다. 차량의 후진 궤적을 기억해 자동으로 조향하는 '기억 후진 보조'도 동급 최초로 적용했다.

디지털 경험도 신형 투싼의 핵심이다. 현대차 SUV 가운데 처음으로 '플레오스 커넥트'를 적용하고 생성형 AI 에이전트 '글레오 AI'와 '플레오스 앱마켓'을 제공한다. 차량 제어를 넘어 지식 검색과 여행 일정 추천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6년 만의 완전변경 모델에 걸맞게 디자인·공간·전동화·디지털 기술 전 영역에서 혁신을 이뤘다"고 말했다.

신형 투싼은 내달 가격을 공개하고 국내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두산로보틱스

권영민 신임 CEO 선임

두산밥캣 CSO·두산모트 대표 등 역임

두산로보틱스가 전략과 글로벌 사업 경험을 갖춘 권영민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사진)로 선임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두산로보틱스는 권영민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권 사장은 1990년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9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주)두산 전략기획본부에 입사한 이후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전략 수립과 글로벌 사업을 담당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인프라코어(현 HD건설기계)에서 중국 영업·마케팅과 글로벌 서비스를 총괄하는 전무로 근무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두산밥캣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지내며 회사의 사업 전략을 이끌었다.

2021년부터는 두산밥캣자회사인 두산모트를 대표이사를 맡아 약 5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과 경영 전반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중장기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LG전자, 공랭식 터보 칠러 상용화... AI DC 시장 정조준

기존제품보다 냉각효율 20% 이상 높여
이재성 사장 "AI DC 시장 주도권 확고히"

LG전자가 기존 제품보다 냉각 효율을 20% 이상 높인 터보 칠러를 앞세워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AI 데이터센터에 맞춘 '공랭식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칠러는 차가운 물을 만들어 서버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대형 냉각 설비다.

신제품에는 전자기력으로 회전축을 공중에 띄우는 '무급유 마그네틱 베어링' 기술을 적용했다. 회전축과 베어링이 맞닿지 않아 기계적 마찰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아 오일 순환 펌프와 배관도 필요 없다. 열교환기 내부에 기름막이 생겨 냉각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도 막는다.

신제품의 부분 부하 효율(NPLV)은 데이터센터에 주로 쓰이는 인버터 스크류 칠러보다 20% 이상 높다. NPLV는 칠러가 최대 용량보다 낮은 출력으로 운전할 때의 효율을 종합한 지표다.

외부 기온이 낮은 간절기와 겨울철에는 압축기를 가동하지 않고 냉매를 자연 순환시키는 '냉매 프리쿨링' 기술을 활용한다. 전력 소비가 큰 압축기의 가동 시간을 줄여 운영비를 낮출 수 있다.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줄이는 '하이브리드 모듈러' 기술도 적용했다. 펌프와 배관 등 필수 설비를 공장에서 완제품 형

태로 제작해 현장에서는 칠러 본체와 컨테이너형 모듈만 연결하면 된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가동 시점을 앞당기고 증설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냉각 설비의 전력 효율도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4년 415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945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냉각을 포함한 기반 설비는 이 기간 늘어나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엔비디아의 DGX GB200은 하나의 랙에 그래픽처리장치(GPU) 72개를 탑재하고 액체 냉각 방식을 적용했다. 한

정된 공간에 고성능 GPU가 밀집해 발열량이 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냉각 설비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수요를 겨냥해 LG전자는 칠러와 액체 냉각 제품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용 냉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당초 2027년으로 잡았던 칠러 사업의 연간 매출 1조원 달성 목표를 앞당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이번 신제품은 압도적 효율부터 모듈러 기반의 신속한 현장 구축 역량까지 AI 데이터센터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가치를 집약한 솔루션"이라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의 주도권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구자은 회장 "AI 시대 빠른 변화, 누구보다 먼저 즐겨야"

(LS그룹)

LS 퓨처데이

실제 사업성과·고객가치 연결 강조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빠른 변화를 누구보다 앞서 받아들이고 이를 실제 사업 성과와 고객 가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AI 탐색을 넘어 사업 성과 창출(AI into Business Impact)'을 주제로 열린 제5회 'LS 퓨처데이'에서 "어제의 공상과학이 오늘의 현실이 되고 오늘의 신기술이 내일이면 평범한 기술이 되는 시대"라며 "변화의 속도를 두

려워하지 말고 그 속도를 누구보다 먼저 즐기는 LS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LS 퓨처데이는 구 회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신사업 아이디어와 연구개발, 업무 혁신 성과를 그룹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해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혁신 역량을 실제 사업에 적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디지털책임자(CDO) 등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성과 공유 프로그램에서는 'AI 기반

케이블 제조 마이스터'와 'AI 데이터센터용 고신뢰 전력 보호 플랫폼' 등 신사업·기술·혁신 분야 19개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발표자들은 AI 코딩을 활용해 제품·솔루션 아이디어를 핵심 기능을 갖춘 시제품(MVP)으로 구현하고 고객 경험 시나리오를 담은 영상도 AI로 제작했다.

우수 프로젝트를 발표한 임직원은 'LS 퓨처리스트'로 선발됐다. 이들은 내년 중국 산업도시를 방문해 현지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최신 기술과 사업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후에 열린 'LS 퓨처포럼'에서는 AI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18일 안양 LS타워에서 열린 '제5회 LS 퓨처데이'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LS그룹

의됐다. 윤송이 PVP 대표와 윤성로 서울대 교수, 김장현 BCG 파트너,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등이 AI 시대의 인재 육성과 산업 현장 적용 전략, 재무 업무 혁신, 피지컬 AI 시대의 제조 환경 변화 등을 다뤘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에이머스 해커톤' 성료

LG가 청년 인공지능(AI) 인재를 대상으로 실전형 해커톤을 열고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역량 강화에 나섰다. 단순한 AI 교육을 넘어 실제 기업 데이터와 과제를 활용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면서 미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LG는 1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LG 에이머스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LG 에이머스는 2022년 하반기 시작된 청년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올해까지 누적 2만3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번 9기에는 역대 최대인 3393명이 참가했다. 온라인 교육과 해커톤 예선을 거쳐 3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96명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LG는 결선 참가자 전원에게 총 1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번 해커톤 특징은 AI 기술 자체보다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스포츠가 제시한 '투수 제구 성공 확률을 예측하는 AI 모델 개발'을 주제로 참가자들은 경기 상황과 중요도, 최근 경기 흐름, 투수별 특성 등을 반영해 다음 투구의 제구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LG는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LG AI연구원, LG전자, LG유플러스, LG CNS 등 4개 계열사는 20일 채용 박람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채용 정보와 진로 상담을 제공했다. AI 인재풀 등록을 안내하는 한편 1대1 취업 컨설팅과 모의 AI 면접 등도 진행했다.

/양성운 기자

‘협동조합 협상권·대금 30일 지급’… 中소 입법 요구 본격화

중기중앙회, 국회 하반기 32개 과제
10개 핵심과제 중점 처리 요청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요건 완화
탄소중립 지원·중대재해법 현실화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중기중앙회가 제22대 국회 하반기에 중점 처리해야 할 업계 입법 현안을 담은 ‘제22대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 32개를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제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등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입법과제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에 두루 걸쳐 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들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대·중소기업 협상력 격차를 경제 양극

KBIZ 중소기업중앙회

제22대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 과제

- ✓ 을(乙)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 ✓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고도화
- ✓ 영세 중소기업 현장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 ✓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및 상생환경 구축
- ✓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단축
- ✓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
- ✓ 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탈탄소 지원체계 마련
- ✓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연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고도화(제도 적용 원재료 요건 완화, 미연동 제도 개선)를 건의했다.

현재 국회 산자중기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주고, 공정거래

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고도화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이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미연

동 합의 규정’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요구 제한 및 수탁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미연동 합의를 허용하는 등 예외로 뒤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줄이자는 내용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도 핵심과제에 담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질서 규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제도화를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 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탈탄소 지원체계 마련이 대표적이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특별법’은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한계를 극복하고 6개 주관부처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성이 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를 통해 지연과제에 대한 규제합리화 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내에 규제샌드박스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 등 현장을 고려한 고용노동 분야 제도 개선과 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입법과제도 핵심과제에 포함했다.

고령인력 계속고용의 경우 기업이 정년 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고령인력활용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HD현대일렉트릭, 유럽 해상풍력 공략 본격화

폴란드 대형 프로젝트에 전력기기 공급
첫 현장 실적 확보…추가 수주 발판

HD현대일렉트릭이 유럽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핵심 전력기기를 납품하며 북미 중심의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의 275킬로볼트(kV)급 변압기와 분로리액터를 탑재한 대형 해상변전소(OSS)가 최근 베트남 붕파우를 떠나 폴란드 발트해로 향하고 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의 변압기와 분로리액터가 설치된 해상변전소가 유럽 해상풍력 현장으로 운송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변전소는 폴란드 연안 약 40km 해상에 조성되는 ‘발티카 2’에 설치된다. 발티카 2는 덴마크 에너지기업 외르스테드와 폴란드 국영전력기업 PGE가 공동 개발하는 설비용량 1498MW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다.

발티카 2는 107개의 풍력터빈과 각각



HD현대일렉트릭이 공급한 275kV급 변압기와 분로리액터가 탑재된 해상변전소가 폴란드 발트해의 ‘발티카 2(Baltica 2)’ 해상풍력 프로젝트 현장으로 출항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375MW의 용량을 갖춘 4개의 해상변전소로 구성되며 2027년 4분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해상변전소는 여러 풍력터빈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육상 전력망으로 전달하는 설비다. HD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는 전압을 높여 해저케이블을 통한 장거리 송전을 가능하게 하고 분로리액터는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전압 상승을 억제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해상풍력용 전력기기는 염분과 습기, 진동, 온도 변화에 장기간 노출된다. 설치

이후에는 현장 접근이 제한돼 점검과 부품 교체도 쉽지 않아 육상용 제품보다 높은 수준의 내구성과 운전 신뢰성이 요구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납품을 통해 고신뢰성 제품이 요구되는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서 현장 적용 실적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납품 실적이 향후 유럽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제품 신뢰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이 장기적인 해상풍력 확대 계획을 추진하면서 관련 전력기기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국과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은 올해 1월 북해에서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100GW의 해상풍력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북해 해상풍력 설비를 2050년까지 300GW로 확대한다는 기존 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상변전소용 변압기와 분로리액터 등 전력기기 수요도 장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

LCC, 환율하락·여객 증가에 실적 회복세

3분기 적자폭 축소 전망

원·달러 환율 하락이 저비용항공사(LCC)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며 3분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항공유·리스료 등 달러 결제 비용 비중이 높은 구조상 원화 강세가 수익성 개선과 재무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는 덕분이다. 다만 고유가와 치열한 가격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 주요 LCC들은 성수기에도 적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LCC의 3분기 영업손실은 2분기보다 일제히 축소될 전망이다. 트리니티항공은 1820억원에서 305억원, 진에어는 731억원에서 70억원, 제주항공은 524억원에서 64억원, 에어부산은 355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1%, 23.4%, 26.4%, 34.4% 증가할 전망이다.

여름 성수기 여객 수요 확대와 환율 하락이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

교통부는 지난 8월 국제선 여객이 930만 57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집계했다. 지난 1월 종전 최고치인 903만 7511명도 넘어섰다. 환율 여건도 개선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8일 1383.3원을 기록해 지난 7월 2일 1555.8원 대비 두 달여 만에 170원 이상 하락했다. 원화 강세는 달러 결제 비용뿐 아니라 LCC가 보유한 외화부채의 원화 환산 부담도 낮춘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LCC들은 달러화 부채가 자산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트리니티항공의 달러화 표시 화폐성부채는 1조 5498억원으로 자산보다 약 9229억원 많았다. 제주항공도 달러화 부채가 자산보다 약 6582억원 많았다. 에어부산의 순달러부채는 약 7734억원으로 집계됐다.

트리니티항공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환율이 10% 하락하면 세후이익이 약 8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공모

비수도권 지자체 대상 3개 유형 모집
규제개선·지역경제 기여도 등 평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7년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후보과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특구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실

증하는 광역연계형특구 등 3개 유형이다.

4개 인팜을 선정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제도다. 지방정부가 특구 계획을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특구 내에서 신기술·서비스 참여 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으며, 그동안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

개 법령 중 63개가 개정되는 등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구 후보과제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이며, 제출 기간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중기부는 제출된 계획서에 대해 규제개선 과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개선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11개 내외의 후보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특구의 경우 해외 실증·인증의 필요성을, 광역연계형특구는 지역 간 협력 체계와 규제개선 효과의 광역단위 확산 가능성 등을 추가로 평가해 각 특구 지정 취지에 적합한 후보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공기청정 성능 높은 ‘노블 플러스’

4면 흡입 ‘4D 입체청정 필터’ 적용

코웨이가 혁신적인 공기 순환 기술과 더 정교해진 공기질 감지 능력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노블 공기청정기 플러스’ 2종(사진)을 출시했다.

노블 공기청정기 플러스는 코웨이만의 혁신적인 ‘4D 입체청정 필터 시스템’을 통해 제품 4면에서 오염된 공기를 집중 흡입하고 4D 입체필터로 강력하게 정화한다. 4D 입체필터는 접이식 사각 타워형 구조로 설계돼 4면에 단계별 필터(4D프리필터, 더블에어매칭필터·멀티큐브탈취강화필터, 4D 에어클린 V 케어필터)가 조합돼 있다.

생활환경에 맞춰 공기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더블에어매칭필터 시스템도 적용해 ▲알러젠필터 ▲펫필터 ▲미세먼지집중필터 ▲매연필터 ▲이종탈취필터 ▲새집필터 등 집안 공기 상황에 따라 특화된 6종의 필터 중 필요에 따라 2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더 강력해진 탈취강화필터는 일상 속 냄새를 98% 이상 제거하며 탁월한 탈취 성능을 발휘한다.

실내 배변 냄새와 털 날림이 고민인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특화 기능도 돋보인다. ‘벧 모드’는 바람을 일으켜 바닥의 털과 먼지를 띄워 올린 후 공기 중의 솜털과 미세먼지를 빠르게 집중 케어한다.

/김승호 기자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방미통신진흥원 통합법인 신설 속도

법사위 통과… 본회의 의결 남아
KOBACO 등 유관기관 통·폐합
부처 협조·고용 승계 등 ‘난항’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출범을 4개월 앞두고 통합 법인 신설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피통합 기관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도 백지 상태여서 실제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방미통신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인 신설은 흠어진 방송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방미통위 소속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및 시청자미디어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의 방송·미디어 업무를 통·폐합하는 게 골자다. 예상 조직 구성원 수는 약 900명으로, 지난해 해당 기관 예산 총액만 놓고 보면 약 1400억원 규모다. 법인 설립 시점은 내년 1월이다.

앞서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방미통위가 인터넷TV(IPTV)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권과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 등 방송·미디어 주요 업무를 맡게 됐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사업의 상당수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에서 분산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진흥과 사업 집행까지 방미통신진흥원이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설 법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은 과기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의 5개 유관 기관의 일부 인력을 방미통신진흥원으로 이관하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이관 범위는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부처의 협조와 고용 승계가 문제다. 최근 유관 기관들은 정책적 혼선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으며,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협력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산하기관의 업무 이관 범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통합의 중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위원회의 근로 조건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언론노조 코바코지부는 성명을 통

해 “재원 확보와 인사제도 통합 등이 전무한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진흥원 설립에 투입되는 제반 비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코바코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시청자미디어위원회 대비 3000만원을 훌쩍 넘는 임금 격차로 양 기관 사이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신설 법인이 뚜렷한 자체 수익 모델 없이 외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결국 인건비와 기관 유지비 충당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방미통위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조직 개편을 시도했었다. 2008년 당시 방통위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현 KISA) 등 정보보호 전문 기관을 방송통신진흥 조직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KISA 노조의 정보보호 고도화 시대에 역행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갈등을 겪었으며, 이듬해 3개 기관을 통합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간판을 바꿔 달며 논란을 매듭지었다.

올해 초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의 설립 배경으로 글로벌 미디어 경쟁 심화를 꼽았다.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방안으로 “규제 합리화와 유료방송 진흥전략 마련 등을 통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고객 문화 축제 ‘KT 보야지 페스티벌’

10주년 맞아 지역 축제로 확대
장기고객 등 총 9000명 초청

KT가 장기고객들을 위한 멤버십 문화 행사를 지역 축제로 확대한다. KT는 고객 문화 축제 ‘KT 보야지 페스티벌’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보야지(함해 또는 여행이라는 의미) 페스티벌은 KT가 2015년부터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년 간 약 30만 명의 고객이 참여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고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 장소 등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특히 행사명을 ‘KT 보야지 투 자라섬’은 ‘KT 보야지 페스티벌’로 바꾸고, 지역과 고객이 만나는 문화 축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 초청 방식도 선착순 예매에서 응모 후 추첨 방식으로 전환한다. 응모는 이

달 22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0월 5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KT홈페이지 및 마이케이티 앱에서 KT멤버십 또는 장기 고객, Y고객(만19세~34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초청 규모는 총 9000명이다.

이번 행사에는 god, 헤이즈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가수 공연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마련했다. 보야지 페스티벌과 함께 10주년을 맞은 Y 브랜드의 생일 축하 콘셉트의 부스도 선보인다. 또한 장기고객 초대 혜택과 KT 상품 체험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행사는 오는 10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앙공원에서 열린다.

KT 홍보실장 김동훈 전무는 “KT 보야지 페스티벌은 지난 10년간 고객들의 참여와 사랑으로 이어져 온 KT의 대표 고객 문화 축제”라며 “10주년을 계기로 더 많은 고객이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지난 19일 경주에서 열린 ‘무도런’에서 SK텔레콤 ‘런메이트 부스’를 찾은 러너 고객들이 줄 서 있다. /SK텔레콤

SKT, 러너 고객 대상 시리즈 행사 진행

‘런메이트’ 브랜드 강화

SK텔레콤이 러너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리즈 행사를 이어간다.

SK텔레콤은 가을 러닝 행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런메이트와 함께 나만의 러닝에 도전하자’ 시리즈 행사를 진행한다. 첫번째 프로그램 ‘러닝템 미리 준비하기’를 통해 가민런코리아 러닝 행사 초대권을 총 250명에게 제공한다. 접수는 오는 11일까지로, 런메이트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고객들은 10km와 하프 코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에 더해 스마트기기 할부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이용 고객 250

명을 별도 추천한다. 이 가운데 20여명을 추가 선정해 아디다스 러닝화(아디제로 EVO SL)를 증정한다. 대상 고객 요금제는 베스트 맥스·프로·109 등이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지난 19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2026 무한도전 런 인 경주(이하 무도런)에서 런메이트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 러너들의 레이스 완주 순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SNS 인증 행사를 진행하고, 무도런 메달 뒷면에 완주 기록을 각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삼성전자 러닝 디바이스 체험존을 마련했다. 행사 당일 부스에는 3400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했다.

/조민선 기자

통신3사, 추석 연휴 실시간 관제 총력

KT, 23일부터 네트워크 집중 관리
SKT, AI 활용 NMC 운영 효율 강화
LG U+,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총 3175억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동통신3사가 트래픽 집중에 대비해 24시간 실시간 관제 등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다.

20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를 사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 맞춰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중소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미리 지급해 상생 경영을 실천한다.

◆ 연휴 기간 실시간 관제센터 가동… 영상통화도 무료

KT는 오는 23일부터 ‘네트워크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고속도로와 KTX·SRT 철도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 거점에 대한 통신 품질을 실시한다. 앞서 기지국 용량 최적화 작업도 완료했다.

연휴 기간에는 주요 휴양지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밀집하는 지역의 5G·LTE 기지국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명절 선물을 사정한 스미싱 문자 유포와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보안 관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통신공사, 통신주 등을 미리 점검하고, 전력 공급이 차단될 것을 대비해 이동형 발전 차량과 휴대용 발전기 등 긴급 전력 장비를 전국 주요 거점에 배치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활용해 네트워크 관제센터(NMC)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약 3600명으로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휴먼서비스 등 관계사와 운용·유지보수 협력사가 함께 한다.

자체 개발한 무선망 AI 운용 시스템 ‘에이원’을 통해 전국 네트워크 트래픽과 장비 상태를 실시간 분석한다. 코어망 AI 통합관제 시스템 ‘스파이더’는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추석 당일(25일)에 예상 데이터 사용량이 최대 10% 가량 증가하고, 국제 로밍 이용자는 평소 대비 최대 25%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트래픽 밀집 지역인 고속도로, 성묘지, 관광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하며, 티맵과 에이닷 등 주요 서비스는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연휴 기간 서울 마곡사육에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앞서 고속도로와 휴게소, 고속철도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기지국의 사전 점검과 품질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또 AI 기반 자율 운영 네트워크 플랫폼인 ‘에이아이온’을 활용해 실시간 트래픽 변화에 대응한다.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상습 정체 구간 등에는 현장 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유플러스tv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이용 증가에 대비해 캐시서버 용량을 증설했다.

통신3사는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영상 통화를 무료 제공한다. 단 카카오톡과 페이스타임 등은 제외된다.

◆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총 3175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KT는 주요 그룹관계사들 함께 중소 협력사에 납품대금 1607억원을 미리 지급한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한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함께 네트워크 공사와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을 맡은 200여개 협력사와 250여개 유통망에 1318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LG유플러스도 250억원의 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한다. 당초 지급 예정일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 오는 23일 일괄 지원한다. 대상은 무선 중계기·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는 중소 협력사다.

통신3사는 중소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KT는 최우수 협력사에 무이자대출을 제공하는 ‘동반성장펀드’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제도를 통해 거래 대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전액 현금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약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와 직접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조민선 기자

“찬바람 불면 배당주” 옛말… 채권·예금으로 투자금 몰린다

연말 대표 투자처 ‘배당주’ 관심 ↓
원화 강세로 수출기업 실적 둔화 우려
증권가 “배당주 방어력 주목해야”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말이면 배당주가 주목받는다. 하지만 올해는 투자자의 관심이 예년 같지 않다. 금리가 오르면서 예금·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데다, 원화값이 뛰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탓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들어 코스피 고배당50 지수 수익률은 -1.8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1.09%)과 코스피200(1.71%), 코스피50(2.44%) 상승률을 밑돌았다. 코스피 고배당50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 높은 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다. 삼성전자·현대차·KB금융·신한지주·SK텔레콤·KT 등이 편입돼 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연 4% 근접
배당주의 인기를 시들하게 만든 건 예금과 채권이다.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1년) 금리는 3.3~3.45%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는 1년 이상 2년 미만 기준 최고



연말이면 주목받던 배당주의 관심이 시들하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3.8%로 연 4%에 근접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6월 1일 연 3.32%에서 7월 31일 3.81%로 0.49%포인트 뛰었다. 7월 말 당시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4%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113개로 전체 312개 상품의 36.2%를 차지했다. 최고금리는 연 4.20%까지 올라갔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1010조3722억원으로 이달 들어 5조1403억원 증가했다.

채권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들어 18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액은 2조8571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2조6677억원 보다 많다.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3년 국고채 연평균 수익률은 코스피 배당수익률을 웃돈다. 지난해 코스피 예상 배당수익률은 2.63%인데 비해 국고채 금리의 연평균 수익률은 3.55% 수준으로 1%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 원화값이 뛰면서 실적 둔화가 우려되는 점도 배당주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유가증권시장 영업이익의 컨센

서스는 990조원 안팎이다. 2분기 평균 1502원대였던 환율은 3분기 1420원대로 약 5% 떨어졌다. 환율이 하락하면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수출주에 부담을 준다. 배당으로 나눠줄 이익이 줄어든다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어주 관점 접근”…주가가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증권가에선 ‘방어주’ 관점에서 배당주를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배당금을 추천한 종목 중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5% 이상인 종목은 총 29개사다.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지역난방공사(8.69%)다. 이어 AJ네트웍스(8.33%), NH투자증권(7.99%), 삼성증권(7.98%), 웹젠(7.96%), SOOP(7.27%), 제일기획(7.23%), 키움증권(7.15%), 한국금융지주(6.84%) 등 순으로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았다.

유진투자증권은 9월 보고서에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배당을 늘렸고, 최근까지 실적 흐름이 양호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고, 현재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4% 이상인 종목으로 오리온홀딩스와 에스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다우기

술, 포스코인터내셔널, 키움증권 등을 제시했다. 금융주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승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높은 국면에서 퀄리티 주식이 유리하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배당 매력에 따른 하방 지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배당주에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예상 배당수익률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업의 이익 개선세, 배당성향과 주가 흐름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배당수익률은 주당배당금(DPS)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그대로여도 실적 악화로 주가가 떨어지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1만원이던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같은 500원의 배당금을 줬다 배당 수익률은 5%에서 10%로 올라갈 수 있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DPS 증가에 따른 고배당은 주주환원 강화의 결과로, 고배당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다만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주가 급락에 따른 펀더멘털(기초체력)의 훼손인지, 지수 하락에 따른 단기적 이슈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국내 증시 주춤하자 해외 ETF 다시 뜬다

올해 출시 해외 기반 ETF 32개
하반기 해외형 비중 13.3%p 증가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는 자산운용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출시된 ETF 137개 중 기초자산이 해외에 기반한 ETF(국내+해외 포함)는 32개(30.88%)로 집계됐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보면 1~6월 상장된 ETF 99개 가운데 해외형 ETF는 27개(27.2%)였으나, 7월 이후 하반기 출시 상품 37개 중 15개(40.5%)가 해외형이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 해외형 ETF 출시 비중이 13.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1년간 출시된 ETF 168개 가운데 해외형은 109개(64.8%)였다. 특히 코스피가 급등하기 전인 작년 상반기에는 72개 출시 상품 중 59개(81.9%)가 해외형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코스피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운용사들은 국내 ETF를 앞다퉈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작년 하반기 상장된 96개 ETF 중 국내형은 46개, 해외형은 50개(52.0%)로 해외형 비중이 낮아졌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했던 올해 상반기에는 그 비중은 30% 아래까지 떨어졌다.

코스피가 6월 말부터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해 3개월째 6000대에서 등락하는 등 지지부진하자, 운용사들이 다시 미증시로 돌아타고 있는 셈이다.

이달 들어서는 새로 출시된 9개 ETF 가운데 4개가 해외형(44.4%)이었다.

NH-아문다자산운용은 지난 15일 에이전틱 AI(인공지능) 관련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HANARO 미국에이전틱AI TOP2+ETF’를,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AI 메모리·데이터 저장장치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미국AI메모리TOP2플러스’ ETF를 상장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서 지난 8일 미

국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미국 단기국채에 절반씩 투자하는 ‘TIGER 미국S&P500미국채혼합50ETF’를, KB자산운용은 글로벌 낸드(NAND) 메모리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RISE 글로벌AI낸드메모리반도체 ETF’(국내+해외)를 지난 1일 출시했다.

이 같은 해외형 ETF 확대는 미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해외형 ETF의 순자산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내형은 코스피 지수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상장된 ETF 가운데 순자산 1,2위는 국내형인 KODEX 200[069500]과 해외형인 TIGER 미국S&P500으로, 지난 6월 말 순자산은 28조8248억원과 20조332억원으로 8조원 이상의 격차가 났다.

그러나 지난 17일 기준 KODEX 200의 순자산은 14.4% 줄어든 24조6483억원, TIGER 미국S&P500은 2.5% 불어난 20조5459억원으로 두 ETF의 격차는 4조1000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허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허위·과장된 투자권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 전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상장 임박”…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보

금감원 Q&A

“공시자료 직접 확인해야”

“곧 나스닥에 상장됩니다. 지금 사두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투자 권유 문구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나 실제 상장 준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했다는 주식을 되팔지 못해 자금이 장기간 묶이거나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과장된 투자권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 전 회사 정보와 투자권유자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입니다. 상장주식보다 공시되는 정보가 적어 회사의 재무상태나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악용해 신기술 개발이나 신사업, 해외 증시 상장계획 등을 부풀려 투자자를 유

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외거래 플랫폼이 있더라도 거래량이 적으면 주식을 팔기 어렵고 직접 매수자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거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는 먼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명을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매출과 당기순이익,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투자권유를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를 권유한 업체의 실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 금융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무인가 업체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하고, 벤처캐피탈을 내세운다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정윤 기자

AI 수익화 기대에 美 소프트웨어주 반등

신한운용 ETF 6개월 수익률 32%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AI소프트웨어ETF’가 지난 17일 기준 최근 6개월 수익률 31.88%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고유가와 고금리 부담으로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가 압박 사이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구독 기반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투자 흐름이 인프라 구축에서 실제 서비스와 업무 활용 단계로 이동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AI 사이버보안 분야는 AI 활용 확대에 따른 보안 위협 증가와 맞물려 기업들의 지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그룹장은 “AI 투자의 무게중심이 인프라 구축에서 실제 활용 단계로 이동하면서 소프트

웨어 기업 전반의 실적과 주가가 개선되고 있다”며 “특히 AI 사이버보안 관련 종목들이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소프트웨어주의 최근 반등 배경으로는 이른바 ‘SaaS Apocalypse(사스포칼립스)’ 우려 완화도 거론된다. 그동안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AI를 실제 매출로 연결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관련 우려가 한층 누그러졌다는 것이다.

/김아영 기자 aykim@

식품·첨단산업 기업, 지방 향한다

3918억 투자·429개 일자리 창출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
10개 기업에 816억 보조금 지원
6개 지자체에 공장 신·증설 추진
올해 누적 투자 유치금액 9530억

정부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방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3918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429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K-푸드 수출 호조에 힘입은 식품기업과 바이오·반도체 소재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이끌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제3차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가 신청한 11개 기업 중 10개 기업에 총 816억원(국비 56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에 선정된 10개사는 모두 강원,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제주 등 수도권과 거리 격차가 큰 6개 지자체에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는 기업들이다.

업종별로는 K-푸드 인기 상승에 힘입은 식품산업과 첨단 미래산업이 투자를 주도했다. 식품 3개사(전남광주 광양, 전북 익산, 경남 양산)는 총 1883억원을 투자해 이번 회차 전체 신규 일자리의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개사, 억원, 명)

구분	의약품·바이오	식품	화학·소재	기타	계
지원기업수	2	3	1	4	10
투자규모	963.0	1,882.8	105.2	967.3	3,918.3
신규고용	80	241	20	88	429

/산업부

56.2%에 달하는 241명을 채용한다.

바이오·의약품 2개사(강원 강릉, 제주)도 963억원을 투자해 8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경북 성주의 반도체용 소재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의 첨단산업 기반 확충에 힘을 보탤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 지역이 3개사 1333억 6000만원(176명 고용)으로 가장 큰 투자 규모를 기록했으며, 경남 2개사 979억원(80명), 강원 1개사 741억 1000만원(60명), 전북 2개사 537억 6000만원(73명), 제주 1개사 221억 8000만원(20명), 경북 1개사 105억 2000만원(20명)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한 투자 규모는 1차 2567억원, 2차 3045억원, 이번 3차 3918억원으로 회차를 거듭하며 증가 추세다. 보조금 제도 개편과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이 본격화된 결과로, 올해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9530억원

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까지 강화해 기업들의 지방 정착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역이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이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이행하고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보조금 심의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며, 지방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은 해당 지방정부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한수원 ESG 위원회 역할에 경영혁신 기능 강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기존 ESG 위원회의 역할에 경영혁신 기능을 강화한 제3기 한수원 ESG·경영혁신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직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한수원은 지난 18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김희천 사장과 비상임이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 ESG·경영혁신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기 위원회는 ‘최고의 안전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더 퍼스트 무버(The First Mover) 한수원’이라는 경영방침에 발맞춰 기존 자문 기구의 역할을 경영혁신 분야까지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급변하는 에너지 및 경영 환경 속에서 외부 전문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을 경영 전반에 이식해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새 위원회는 유연백 한수원 비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두고 에너지, 사회, 거버넌스, 경영혁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대내외 주요 경영 현안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조직·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한수원이 추진해 온 ESG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김희천 한수원 사장은 “ESG 경영과 경영혁신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경영 과제”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 1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대청댐 수열에너지 활용 친환경 AIDC 조성 박차

수자원공사, 약 2만RT 규모 수열로
AIDC 냉각 도모… 7개 기관 ‘맞손’
투자선도지구 선정, 약 3525억 투입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 및 민간 IT 기업들과 손잡고 대청댐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8일 충북도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전력공사, 충북테크노파크, ㈜GS ITM, ㈜임팩스와 대청댐 수열특화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전력계통 연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주시 서원구 일원에 조성되는 대청댐 수열특화단지 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에 약 2만RT(냉동톤) 규모의 청정 수열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전력망과 실질적인 민간 기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데이터센터는 전체 소비 전력의 40% 이상이 장비의 열을 식히는 냉방용으로

쓰여 전력 부담이 매우 큰 시설이다. 하지만 수열 냉각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 에어컨 가동 방식 대비 냉방 에너지를 30% 이상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고성능 연산으로 막대한 열을 발생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과부하를 줄여 입주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협약에 참여한 7개 기관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수열·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 ▲안전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 및 설비 구축 ▲인·허가 행정 지원 ▲지역 AI 생태계 조성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가동한다.

총사업비 약 3525억원이 투입되는 대청댐 수열특화단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인·허가 신속 처리, 국비 지원, 세제 감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국순당서 현장 벤치마킹

노사 파트너십 우수기업 현장 행보

노사발전재단이 ‘문제해결형 노사 협력’의 일터 정착을 위한 현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사 간 대립구도 일변도의 관행 타파에 목적을 둔다.

재단은 지난 17~18 이틀간 노사 파트너십 활동 우수기업인 국순당을 찾아 현장 벤치마킹 워크숍을 가졌다. ‘2026년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벤치마킹 대상인 국순당은 2021년 노사파트너십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원·하청 상생협력 활동을 모범적으로 펼치고 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국순당의 원·하청 상생 모델, 협력적 소통 노하우, 근로조건 개선 사례 등을 살펴봤다.

워크숍에서는 단허 있던 대화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뤘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상생 사례 학습을 시작으로 참여 활동을 통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사후 처방이 아닌 자사 실정에 맞는 ‘사전 예방적 파트너십’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



노사발전재단이 민간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노사 파트너십 활동’ 우수기업인 국순당을 찾아 현장 벤치마킹 워크숍을 실시했다.

았다.

올해 3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 ‘2026년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의 핵심은 ‘사전 예방’과 현장 밀착형 소통’이다.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노사가 대화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현장지원 코칭’을 전면 도입했다.

재정 지원은 목표 100개소를 이미 달성했다. 현장지원코칭 역시 97개소를 지원해 목표 100개소 달성을 앞두고 있다. 개별 사업장을 넘어 업종·지역별 협의회까지 참여 폭이 넓어졌다. 이에, 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노사 공동의 대응 등 산업 전반에 상생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美·日 등 해외 소고기 등급제 ‘한눈에’

축평원 ‘해외 축산 정보’ 보고서 발간

외국에서 통용되는 소고기 등급제를 비롯해 등급판정 자동화 기술 추이 등을 엿볼 수 있는 책자가 나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 축산물 등급제 및 기술 발전 지원을 위해 ‘2026년 해외 축산 정보 : 해외 주요국의 쇠고기 등급제 및 소도체(식용으로 가공 전 형태) 등급판정 자동화 기술 동향’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호주,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별 축산업 구조를 비롯해 유통 환경, 주요 소비 특성 및 수출시장에서의 위상 등이 담겼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축산물 등급제 운영 목적과 평가 기준,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소고기 등급제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품질과

‘수율’(소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나 비율을 함께 평가하고, 호주는 도체 특성과 소비자 ‘식품 품질’(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느끼는 맛과 품질)을 연계한다.

일본과 한국은 마블링 중심으로 육질을 세분화하는 반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거래 표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각국의 소고기 등급제가 고기 외형이나 상업적 가치 평가에서 나아가,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품질 중심 평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주의 MSA(식품품질 등급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도체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의 식품 품질을 예측하는 체계다.

미국에서도 등급판정 결과와 소비자가 체감하는 품질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등급표준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항만공사, 통영시에 바다숲 조성

총 7개 기관 민·관 협의체 구성

부산항만공사가 기후위기 대응 및 해양생태계 보전 목적의 바다숲을 조성한다. 이는 경남 통영시 육지면 동동 인근 해역에 1.55km2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경남 거점 금융기관인 BNK금융그룹, 부산항터미널 운영사인 신선대감터미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HPNT,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등 총 7개 기관으로 꾸려졌다.

바다숲은 바다사막화로 훼손된 연안에 해조류가 군락을 이루도록 조성해, 해양

생물의 산란·서식공간을 회복해 연안생태계의 종다양성과 해조류 생태량을 증가시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조류를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연기반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바다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및 기관 간 협력 ▲대상 해역 내 해조류 등 서식기반 조성 ▲조성해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효과 모니터링 등이다.

이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공사는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곳이 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의 편의점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2

Always

예매하기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서울 의대 수시지원 10년 새 ‘최저’ 지방 지역인재 전형은 40% 급증

서울권 8개 의대 수시 지원자
1만6181명… 전년비 1.6% ↓
지방의대 27곳 지역인재 전형
1만5775명 지원… 5년 새 최대

〈서울권 의대 수시 지원상황〉						(정원내 기준)
대학수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8	21,131	20,401	19,522	23,876	22,409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전년대비	
					지원자수	증감률
18,211	18,290	16,671	16,448	16,181	-267	-1.6%

/종로학원

2027학년도 서울권 8개 의대 수시모집 지원자가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선발 확대로 수도권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문호가 좁아진 데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로 지원 수요가 분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서울권 8개 의대 수시 지원자는 1만6181명으로 전년 1만6448명보다 267명(1.6%)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규모다.

서울권 의대 수시 지원자는 2018학년도 2만1131명에서 2020학년도 1만9522명으로 줄었다가 2021학년도 2만387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학년도 2만2409명, 2023학년도 1만8211명, 2024학년도 1만8290명, 2025학년도 1만6671명, 2026학년도 1만6448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지원자는 최고치였던 2021학년도보다 7695명(32.2%) 줄었다.

수도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

대 전국선발 전형의 지원 감소 폭은 더욱 컸다. 지방 의대 26곳의 전국선발 전형 지원자는 8627명으로 전년(1만555명)보다 1928명(18.3%) 감소했다. 2022학년도 2만1011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59%가량 줄어든 규모다.

경인권 4개 의대 지원자도 전년 1만2942명보다 920명(7.1%) 감소한 1만2022명으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적었다. 서울·경인권 의대와 지방 의대 전국선발 전형 등 수도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전체 지원자는 3만6830명으로 전년보다 3115명(7.8%) 감소했다.

반면 지방 의대에서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자는 크게 늘었다. 2027학년도 지방 의대 27곳의 지역선발 전형 지원자는 1만5775명으로 전년 1만1247명보다 4528명(40.3%) 증가했다.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됐던 2025학년도 1만9423명을 제외한

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경인권과 지방 의대의 전국·지역선발 전형을 모두 합친 지원 건수는 5만2605건으로 전년 5만1192건보다 1413건(2.8%) 증가했다. 의대 지원 열기 자체가 식었다기보다는 수도권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서 지방 학생 대상 전형으로 지원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와 지역의사제 선발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 문호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며 “수도권 수험생 일부가 반도체 등 전문학과로 이동하는 현상과 함께, 의대 진학만을 목표로 할 경우 중·고교 단계부터 지방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마감 후 접수된 수시 원서 전면 취소하라”

수시 접수 먹통 사태 후폭풍
교육부, 수험생 354건 구제 확정
수험생 연대 “마감 연장 불공정”
전산 장애 피해 소송 의지 밝혀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구제 조치를 확정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험생 단체가 집회에 이어 소송까지 예고한 데 이어, 여야 정치권도 진상조사와 원서접수 시스템 개편을 촉구 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유웨이 전산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 가운데 354건의 구제를 확정했다. 반면 마감 연장 시간에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사실이 전산상 확인된 3건은 대학 측에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수험생 연대)’ 소속 학부모와 수험생 50여명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우리는 공정한 입시를 원한다’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의 구제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 측은 마감 연장 자체가 불공정했다며, 18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모집 요강과 접수 안내를 믿고 마감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수험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킨 것”이라며 “추가 접수를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마감 연장 시간 동안 17개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하며, 당초 시간에 맞춰 접수한 수험생이 불리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다. 이날 집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소송 의지도 밝혔다.

정치권도 가세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는 21일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조사와 시스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에 대한 공정한 수습과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민석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원서접수 대행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문제 삼아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서울 검정고시 전체 합격률 90.9%

4439명 합격… 전년비 280명 늘어

올해 제2회 서울 지역 검정고시에서 4883명이 응시해 4439명이 합격했다. 전체 합격률은 90.9%로,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90.5%)보다 0.4%포인트(p) 높아졌다. 응시자도 지난해(4596명)보다 287명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졸이 351명 중 334명이 합격해 95.2%로 가장 높았다. 중졸은

922명 중 850명(92.2%), 고졸은 3610명 중 3255명(90.2%)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초졸·중졸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초졸은 94.1%에서 95.2%로 1.1%p, 중졸은 90.5%에서 92.2%로 1.7%p 올랐다. 고졸은 지난해와 같은 90.2%를 기록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총 5608명이 지원해 4883명이 응시했다. 합격 결정 사정 대상 인원 4442명 중 4439명이 최종 합격했

다. 지난해 제2회와 비교하면 지원자는 282명, 응시자는 287명 늘었으며 합격자는 280명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오후 2시 교육청 1층 시청각실에서 합격증서 수여식을 연다. 수여식에는 최고령·최연소 합격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합격생 대표와 가족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합격생 대표 20명에게 합격증서를 전달한다. 검정고시총동문회와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이 각각 장학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김해김이 브랜드 10주년 기념 국내 첫 단독 패션쇼에서 아디다스와 협업한 스탠스미스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

서울패션위크, 757만달러 수주상당 실적

잠실까지 확장… 17.6만명 유입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 1500만회

서울패션위크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잠실까지 개최 무대를 넓히며 757만달러 규모의 수주상당 실적을 기록했다. 잠실 월드파크 일대에는 행사 기간 17만6000명이 유입됐고,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는 1500만회를 넘어섰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열린 ‘2027 S/S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에는 국내 패션 브랜드 106개사와 20개국 해외 바이어 98명이 참여했다. 지난 4일 기준 1차 집계된 수주상당액은 757만달러다.

프랑스 프랭탕과 사마리텐, 일본 레스티어, 홍콩 클럽21 등 해외 유통사·편집숍 바이어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DDP 상담과 성수·한남동 쇼룸 방문을 연계해 해외 바이어가 국내 브랜드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DDP에서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패션쇼와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한나신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의류와 액세서리를 선보였고, 키모우는 메타와 레이벤의 스마트 안경을 런웨이에 활용했다. 열건과 광현주 컬

렉션은 공연과 라이브 음악을 패션쇼에 결합했다.

잠실에서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김해김과 던스트 등 대중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런웨이가 열렸다. 김해김은 브랜드 10주년을 맞아 국내 첫 단독 패션쇼를 열고 아디다스와 협업한 스탠스미스 컬렉션을 처음 공개했다.

런웨이 작품작 일부는 롯데백화점 온라인몰에서 패션쇼 직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패션쇼를 상품 판매로 연결하는 ‘썬아우 바이아우’ 방식이다.

행사 기간 잠실 월드파크 일대 유입 인원은 약 17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만9000명보다 5만7000명 늘었다. NCT 데뷔 10주년 무대 의상 전시와 플라마켓도 열렸다. NCT 음악과 무대 의상을 활용한 런웨이에는 1만명 이상이 찾았다.

온라인에서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178건의 콘텐츠가 공개됐다. 누적 조회수는 1500만회 이상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DDP의 패션 비즈니스 기능과 잠실의 유통·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해외 판로 개척과 시민 참여를 함께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양주시, 시민 체감형 생활 기반 확충

GTX-C, 7호선 연장 등 교통망 강화
테크노밸리·산단으로 일자리 확대

양주시는 옥정·화천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커진 도시 규모에 맞춰 교통·교육·산업 문화·의료·복지 기반을 확충하며 시민 생활 중심의 도시 성장에 나선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C와 전철 7호선 연장이 핵심이다. GTX-C는 지난 9월 15일 본공사에 착수했으며 2031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 덕정에서 서울 도심을 거쳐 수원·상록수까지 86.6km를 잇는 노선으로 개통하면 덕정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양주역 추가 정차도 추진한다. 덕계역 급행열차 정차로 왕복 15회 증차 효과를 확보한 데 이어 덕계·덕정역 퇴근시간대 배차간격도 단축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신도시 학교 확충을 추진한다. 가남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고 AI·코딩·로봇 교육과 진로교육을 확대한다. 청년 인턴십과 창업 지원도 연계한다.

산업 기반으로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를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은남일반산업단지에서 제조·유통·물류 기업을 유치한다. 지난 7월 입주기업들과 286억원 투자와 140명 신규 고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로지스밸리와는 130원 규모 투자계획을 담은 입주협약을 맺었다.



장덕영 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화천 신도시에서 현장회의를 하고 있다. /양주시

문화 분야에서는 화암사지의 202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지난 7월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대한민국관에는 열흘간 13만7000여 명이 방문했다. 양주 대모산성 발굴·정비와 양주관아지 체험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을 2030년 착공해 2033년 개원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경기도 타당성 조사에서 양주 공공병원의 비용편익비(B/C)는 1.20으로 나타났다. ‘양주형 통합돌봄 스마트케어 사업’을 통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도 생활권 중심으로 강화한다.

민선 9기 양주시는 ‘시민주권·대전환·경기북부 중심 양주’를 목표로 도시 확장의 성과가 출퇴근과 교육·일자리 그리고 의료·돌봄 등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도록 생활 기반을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관광객 소비에 유통가 함박웃음… 면세점 ‘객단가 하락’ 발목

1~7월 방한객 1280만명… 21% ↑
쇼핑 넘어 배달 등 소비영역 확산
면세점, 관광객 증가 효과 제한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백화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편의점 등 국내 유통업체가 외국인 소비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영역이 패션과 의료, 음식 배달 등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반면 과거 외국인 쇼핑의 중심이었던 면세점은 구매객 증가에도 객단가가 하락하면서 관광객 증가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방한 외국인은 209만322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8%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과 비교하면 44.6% 많은 수준이다. 올해 1~7월 누적 방한객도 12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늘었다.

늘어난 관광객의 소비는 면세점에서 백화점과 뷰티·패션·생활용품 등 도심 유통매장으로 빠르게 분산되고 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총 1조7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지방 점포의 증가세도 두드러져 올해 1~7월 롯데백화점 부산본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점과 롯데몰 동부산점의 외국인 매출은 각각 160%, 180% 늘었다.

CJ올리브영은 올해 1~8월 국내 오프라인 매장의 외국인 누적 구매액이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르게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오프라인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에서 올해 33%로 확대됐다. 다이소의 올해 1~7월 해외카드 결제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증가했다.

패션과 편의점에서도 외국인 소비가 늘고 있다. 올해 1~8월 무신사 스탠다드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명동점 68%, 홍대점 53%, 성수점 61%에 달했다. 올해 1~7월 외국인 매출은 CU가 전년 동기 대비

78.7%, GS25가 69% 증가했다.

소비 영역은 쇼핑을 넘어 배달 등 생활 서비스로도 확산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배달 주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1%, 거래액은 308% 증가했다. 해외 발행 신용카드와 글로벌 간편결제, 다국어 서비스 도입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처가 다양해진 것과 달리 면세점은 관광객 증가 효과가 매출 증가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외국인 면세점 구매객은 130만3527명으로 전월 대비 1.9% 증가했지만 외국인 매

출은 같은 기간 9176억원에서 8249억원으로 10.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1인당 구매액도 약 71만7000원에서 63만3000원으로 한 달 새 11.7% 줄었다.

기간을 넓혀 봐도 객단가 하락 추세가 나타난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면세점 구매객은 664만49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은 4조8415억원에서 4조9967억원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외국인 1인당 구매액은 지난해 상반기 약 94만원에서 올해 약 75만원으로 20%가량 감소했다.

다만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 자체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월 6405억원에서 8249억원으로 28.8% 증가했다. 전체 면세점 매출도 같은 기간 9199억원에서 1조666억원으로 15.9%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과 구매객 증가 속도에 비해 매출 증가 폭이 제한되면서 객단가가 낮아지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면세시장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타이궁(보타리상)의 대량 구매가 줄고 개별관광객(FIT)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타이궁 등이 면세점에서 화장품과 명품을 대량 구매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렸

지만, 최근 개별관광객은 백화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편의점, 패션 매장 등으로 쇼핑 동선을 넓히고 있다. 배달과 의료 등 국내 체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형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면세업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올해 2분기 롯데·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 등 주요 4개사는 모두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4사의 영업이익을 단순 합산하면 10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억원 적자에서 1153억원 개선됐다.

다만 실적 개선에는 관광객 증가뿐 아니라 비용 구조 조정과 인천공항 사업 재편 등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 4월 입차료 부담이 컸던 인천공항 DF1·DF2 사업권을 반납했고, 롯데와 현대는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아 공항 업무를 확대했다.

면세점들도 FIT 고객을 겨냥해 K뷰티와 K푸드, 패션, 캐릭터 등 상품군을 확대하고 글로벌 간편결제와 체험형 매장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전체 매출에서 개별여행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분기 50%에서 올해 2분기 55%로 상승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

유통업계 추석 맞이

스팸·참치·생활용품 등 실용적 선물 인기

G마켓 ‘한가위 빅세일’ 판매 분석
주요 브랜드사 ‘국민 선물세트’ 기획

G마켓은 올 추석에도 스팸과 참치, 생활용품 등 이른바 ‘국민 선물세트’가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밝혔다. 받는 사람의 취향을 크게 타지 않으면서 일상에서 바로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선물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G마켓이 추석을 맞아 진행 중인 ‘한가위 빅세일’의 스타배송 선물세트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 3주간(8월 24일부터 9월 17일) 거래액이 전년 한가위 행사(2025년 9월 1일부터 9월 25일) 대비 69% 증가했다.

특히 실용적인 ‘국민 선물세트’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CJ제일제당 스팸을 비롯해 대상 청정원 복합 선물세트, 사조대립 안심특선, 동원F&B 참치 선물세트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LG생활



G마켓 선물세트.

/G마켓

건강 생활용품 세트와 종근당건강 건강식품, 오설록 티 세트 등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품도 인기다.

국민 선물세트의 인기 배경에는 G마켓이 주요 브랜드사와 명절 수요를 예측해 상품 구성부터 혜택까지 사전에 공동 기획한 전략이 있다. 이미 판매 중인 상품을 단순 할인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조합한 G마켓 전용 기획세트와 단독 구성,

사은품 등을 사전에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

G마켓의 추석맞이 ‘한가위 빅세일’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추천상품으로 ▲CJ선물세트 스팸 복합 HM호 ▲동원 참치 0-12℃호 ▲청정원 행복4호 ▲설화수 NEW 자음2종 ▲LG생활건강 프로폴리스 E스페셜 ▲종근당건강 홍삼녹용프리미엄 선물세트 등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百貨 “선물세트, 바로 배송해드려요”

배송 등 ‘막바지 구매족’ 수요 대응
핸드캐리 인기품목 최대 40% 할인

롯데백화점은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는 ‘막바지 구매족’을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귀성길에 들고 가기 간편한 ‘핸드캐리 기프트’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휴대성과 실용성을 고려한 추석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준비 물량을 20~30%가량 확대했다. 실제로 핸드캐리 품목 비중이 높은 디지털 건강 상품군의 경우 올해 설 명절 기프트 판매에서 명절 직전 일주일 매출이 전체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막바지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K-디저트’ 기프트를 선보인다. 생과일 참쌀떡 9구와 수제 도자기 세트로 구성된 ‘한정선 롯데 익스클루시브 세트’, 한국 사찰 음식 전문가와 셰프가 협업한 김부각 세트인 ‘바삭(VASAK) 셰프 에디션 혼합 선물세트’, 로스팅한 견과류와 콩두부 반죽으로 얇게 구워낸 전병 6종으로 구성된 ‘강성은 명과 산수화’ 등이 대표적이다.

일상 속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고객을 겨냥한 추석 기프트도 선보인다.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음용하는 수요를 반영해 1000mg 이상의 폴리페놀을 함유한 올리브 오일 시리즈를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다. ‘아트사스 폴리페놀 올리브 오일’, ‘하이퍼텔리온 유기농 폴리페놀 올리브 오일’ 등이 대표 품목이다. 또 안상규별과과 반고흐 뮤지엄 및 디즈니가 협업한 ‘반고흐 허니스트 2



서울시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추석 ‘핸드캐리 기프트’를 선보이는 모습.

/롯데쇼핑

중’, ‘디즈니 푸스퀴즈’ 기프트 등을 판매한다.

10만원 이하 선물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 기프트’로 ‘레피세리 저키야 한입 육포’, ‘팔도카라멜 6구 리미티드 에디션’을 비롯해 ‘롯데호텔 프리미엄 김치 캔시머’, ‘한 알 명란 3종 기프트’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추석 임박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18일부터 23일까지 추석 기프트를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엘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한우·굴비·과일 등 핸드캐리 인기 품목 40여 종을 선정해 최대 4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막바지 배송 수요를 고려해 ‘추석 바로 배송 서비스’도 운영한다. 본점, 잠실점 등 수도권 백화점 17개점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구매한 추석 기프트에 한해 해당 점포 반경 5km 이내 주소지로 3시간 안에 배송한다.

/김서현 기자

이마트, 전·떡갈비 등 제수용 간편식 할인

행사카드 전액 결제시 최대 20%

이마트가 추석 당일인 25일까지 간편제수용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최대 20% 할인한다.

대상 품목은 송편부터 모듬전, 떡갈비 등 피코크 명절 제수용 간편식 55종이다. 대표 상품으로 ‘피코크 모듬전

(475g)’과 ‘피코크 소고기육전(300g)’, ‘피코크 흰송편(600g)’과 ‘피코크 모깃잎송편(600g)’을 각각 10% 할인해 판매한다.

튀김 및 잡채류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은 ‘피코크 고기품은표고버섯튀김(400g)’과 ‘피코크 오색잔치잡채(610g)’ 등이다.

대용량 기획 상품도 10% 할인한다.

기준 용량을 2배 가까이 늘린 ‘피코크 떡갈비(900g)’와 ‘피코크너비야니대용량 기획(1.1kg)’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피코크 제수용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신세계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즉석조리 코너 ‘키친팔리’에서도 명절 맞이 간편 제수음식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사각오색전, 동태전, 완자전, 녹두전, 찹쌀전 등으로 구성된 ‘알찬 모듬전(떡)’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한다.

/김서현 기자

인벤티지랩, 약물중독 치료제 美 특허… 임상 2상 본격화

월 1회 투여 치료제 ‘IVL3004’
기존 비비트롤과 차별화된 용량
약효 지속성·제조기술 범위 확대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약물중독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관한 미국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날트렉손을 포함하는 서방형 주사제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벤티지랩이 개발 중인 월 1회 투여형 약물중독 치료제 IVL3004의 핵심 제형 특성과 제조기술을 보호한다.

권리범위에는 일정한 약동학적 특성과 균일한 입도분포를 갖는 미립구 조성물 및 제조방법이 포함됐다. 이는 약물의 급격한 초기 방출을 제어하면서 1개월간 안정적으로 방출되는 IVL3004의 제품 성능을 구체적인 수치로 권리화한 것이다.

특히 중속항에는 240mg 초과 310mg 미만의 날트렉손을 포함하는 조성물이 명



인벤티지랩이 약물중독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관한 미국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았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시됐다. 기존에 사용된 의약품인 알커미스의 비비트롤(Vivitol)의 특허가 190~240mg 및 약 310~480mg의 투여량과 경구제 대비 혈중 노출량, 치료방법을 주요 권리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인벤티지랩은 차별화된 고유의 용량 영역을 확보하고 특정 투여 용량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

한 약동학적(PK) 특성 자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권리까지 함께 담았다. 여기에 입도 균일성, 장기 지속 방출 성능, 독자적 제조공정 기술을 결합하여 기존 특허 장벽을 극복했다.

인벤티지랩은 앞서 특정 입자 크기와 생분해성 고분자 특성을 갖는 날트렉손

미립구 조성물에 관한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 기존 특허는 미립구의 구성과 입자 특성을 보호한다면, 이번 특허는 약동학적 성능과 입도분포, 용량 범위 및 제조방법까지 추가로 보호한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특허 등록결정은 IVL3004의 미국 개발과 사업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알코올 및 오피오이드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장기지속형 날트렉손 시장이 이미 크게 형성돼 있어, 임상적 유효성과 환자 편의성이 검증된 개량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이다. 인벤티지랩은 IVL3004를 기존 제품보다 적은 용량으로 4주간 유효 치료 혈중농도를 유지하고 주사부위 반응의 지속기간을 단축한 임상 1상 결과와 등록된 미국 특허들을 기반으로, 비비트롤의 한계를 개선한 개량신약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제품 권리와 제조기술 보호는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협상에서 IVL3004의 사업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미국 FDA 임상개발을 통해 확보한 임상·허가 자료를 국내 개발에 연계하고, 향후 중독 치료기관과 공공의료 영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IVL3004 개발 과정은 최근 ‘2026년 정책지정형 글로벌 팁스’에 선정됐다. 인벤티지랩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FDA와의 규제 협의 및 글로벌 임상 2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 등록결정은 IVL3004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독자적인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글로벌 파트너를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사업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미국 임상개발 성과를 국내 허가과 공공의료 시장 진입으로 연결해 약물중독 치료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식품연과 건기식 신소재 개발

건강수명 연장 소재 개발 등 협력
효능 검증, 분석법 개발, 제품화 연계

LG생활건강이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및 분석기술 개발 등 식품 분야 연구 사업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나이 드는 ‘웰에이징(well-aging)’ 시대를 맞아 건강수명 연장(Longevity) 관련 소재를 발굴하고,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생활건강과 식품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제형 기능성분 분석법 공동개발 ▲신규 건강수명 연장 소재 공동개발 ▲사업과 분야 비즈니스 모델 협업 ▲국내외 신시장 진출에 필요한 상품개발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교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R&D 인프라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

특히 LG생활건강의 제품 개발 및 글로벌 사업 역량과 식품연의 식품 분석·연구 인프라를 결합해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식품



LG생활건강과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이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효능 검증과 분석법 개발, 제품화 가능성 검토를 연계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솔루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양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신소재 검증과 신제형 식품 분석 등 세부 협력을 본격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시

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과학적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출발점”이라며 “식품연과 긴밀히 협력해 연구 성과를 실질적인 제품과 고객 경험으로 연결하고, 미래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6년근 홍삼 담은 ‘유한 데일리 홍삼’

유한양행, 개별 포장으로 편의성 높여

유한양행이 6년근 홍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유한 데일리 홍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루 한 포(10mL)로 간편하게 섭취하는 액상 스틱 형태로, 1일 섭취량 기준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3mg을 함유했다.

‘유한 데일리 홍삼’은 식약처 기능성 기준을 충족해 바쁜 일상 속 하루 한 포로 다섯 가지 건강 고민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30포(300mL) 한 달 분으로 구성된 이번 신제품은 개별 포장 스틱 제형을 적용

해 휴대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별도의 계량이나 물에 희석하는 번거로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깔끔하게 섭취할 수 있어, 기존 유리병 농축액이나 부피가 큰 과우치 형태에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섭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원료 배합도 돋보인다. 홍삼 고유의 씹싸름한 맛을 완화하고 깊은 풍미를 더하기 위해 엄선된 전통 식물성 원료를 조화롭게 배합,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부드럽게 마실 수 있도록 구현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홍삼은 대중적인 건강식품인 만큼 원료의 신뢰도와 꾸준히



유한양행 ‘유한 데일리 홍삼’

챙겨 먹을 수 있는 섭취 편의성이 핵심 선택 기준”이라며, “엄선된 6년근 원료와 유한양행의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상 속 활력이 필요한 현대인은 물론 명절·기념일 선물용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에스티팜, 올리고 원료 913억 수주

미국 바이오텍 기업과 공급계약

에스티팜이 미국 소재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과 913억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리고 핵산 원료의약품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고객사는 계약서 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공급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 11월까지다.

이번 수주 금액은 에스티팜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 317억 원 대비 약 27.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에스티팜은 올해 1월 825억 원, 3월 897억 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원료의약품 수주 계약에 이어 이번 913억 원 규모의 계

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단일 수주 규모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에스티팜은 지난해 제2올리고동 증설을 통해 아시아 1위이자 글로벌 톱티어(Top-tier)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조기 개발 단계부터 공정·분석·변경허가까지 고객사 맞춤형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 및 바이오텍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CJ웰케어 침향환, 1년만에 200만환 판매

온라인 채널서 1+1 프로모션

CJ웰케어의 ‘한뿌리 흑삼단 침향환’이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 환을 넘어섰다. 추석을 앞두고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는 1+1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CJ웰케어는 지난해 8월 출시한 한뿌리 흑삼단 침향환의 누적 판매량이 200만 환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약 5000환이 판매된 것으로, 24환 기준 약 8만 3000세트에 해당한다.

제품에는 고품질 침향 15%와 흑삼·녹용·산수유·당귀 등 전통 원료 5종을 배합했다. 흑삼은 100% 국내산 수삼을 9번 찌고 말리는 구경구포 방식으로 제조한 농축액을 사용했다. CJ웰케어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원료다.

침향은 ‘아퀼라리아 말라센시스’ 품종을 사용했다. 회사 측은 중금속 4종과 농약 성분 158종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친 원료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제품의 섭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벌꿀 배합 비율을 조정했으며, 24환을 개별 포장해 휴대와 보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뿌리 흑삼단 침향환

/CJ웰케어

CJ웰케어는 추석 선물 수요에 맞춰 오는 25일까지 주요 유통 채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와 CJ더마켓, 카키오톡 선물하기, 쿠팡 등에서 1+1 기획전을 운영한다.

CJ웰케어 관계자는 “한뿌리 흑삼단 침향환은 원료 조합과 섭취 편의성을 바탕으로 200만 환 판매를 달성했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매콤달콤의 최적 밸런스

리아 불고기 세트

더블 불고기 패티로 든든하게

리아 불고기 더블 레드

NEW

NEW

감자채전 토핑으로 바삭하게

리아 불고기 레드

LOTTERIA™

지역소멸 해법 한자리에… SOVAC, AI로 ‘로컬의 미래’ 모색

코엑스에서 지역·AI 사회문제 해법 공개
청년 유출·인구 감소 집중 조명
228개 기업·기관 세션·전시 참여

국내 대표 사회적가치 생태계 플랫폼 SOVAC(Social ValueConnect)이 지역 격차와 청년 유출, 인구 감소 등 지역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SOVAC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공동 주관한다고 20일 밝혔다.

SOVAC은 2019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출범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대표 사회적가치 생태계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24년부터는 사회적가치 분야의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4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SOVAC은 228개 기업·기관과 함께 세션과 마켓,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SOVAC 2026’ 포스터. /SK그룹

선보인다.

올해 SOVAC의 핵심 의제는 ‘로컬(Local)-지역의 미래’다. SOVAC은 지난 5월부터 오프라인 모임인 ‘SOVAC Salon’을 통해 지역 청년과 사회적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논의한 지역의 과제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행사 첫날인 21일 열리는 ‘SOVAC 플래그십 세션’에서는 기업과 학계, 사회적가치 생태계 관계자들이 지역 현장의 과제와 대응 사례를 살펴본다. 정경선 현대해상 부사장과 김종걸 한양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짚는다.

이어 육심나카카오임팩트사무총장과 하재형 임팩트얼라이언스 이사장, 이강희 다론포도 대표 등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경북 시민재단과 희망제작소, 초록우산 등도 청년과 돌봄·복지, 창업·투자, 금융 분야의 지역 문제와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AI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사례도 공개된다. SK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기업의 사회공헌(CSR) 사업으로 발생한 변화를 AI로 분석해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측정·평가 플랫폼을 처음 선보인다. 이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은 지역 돌봄과 AI 격차 해소 등에 AI를 접목한 사례를 발표한다. ‘AX 기획전’에서는 사회적가치 분야 실무자들이 보고서 작성과 자료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AI 프롬프트도 무료로 공개한다.

행사장에는 전시·마켓 부스 300여개가 마련된다. SOVAC 마켓에서는 지역 기업과 조직들이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선보인다. 올해 처음 마련된 팝업부스에는 57개 기업·조직이 참여하며 사회적가치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미니 채용박람회와 관람객의 관심사에 맞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도슨트 투어도 진행된다.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올해는 ‘로컬-지역의 미래’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새로운 협력과 시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ESG 선도대학, 시몬스 ESG 현장학습

ESG 선도대학이 시몬스의 ESG 경영을 배우기 위해 경기 이천에 있는 시몬스의 심장부를 방문했다. 20일 시몬스에 따르면 경기대학교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운영하는 ‘2026 ESG 선도대학’은 시몬스 팩토리움과 시몬스 테라스에서 ESG 현장탐방을 진행했다. /ESG 선도대학



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 이웃 지원을 위한 ‘2026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KB국민은행

SK온, 헝가리 사회공헌 인정 2년 연속 수상

발달장애인 음악축제·기부 활동 전개
직업교육·취약계층 지원 등 상생 확대
현지 진출 기업 CSR 시상식서 모범상

SK온이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와 기부·헌혈, 직업교육 등 헝가리 지역사회에서 펼쳐온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현지 진출 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SK온은 ‘제2회 헝가리 진출 기업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시상식’에서 ‘나눔실천 모범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주헝가리 한국대사관 주최로 지난 18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지역사회 기여와 환경 보호, 교육·복지 지원 등에 힘쓴 한국 기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SK온은 지난해 제1회 시상식에서 ‘혁신적 CSR 실천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수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식 SK온 유럽 법인장은 행사에 참석해 헝가리에서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소개했다.

SK온은 2020년 헝가리 코마름에서 상업 가동을 시작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공익재단 기부와 취약계층 지원, 임직원 봉사, 지



김성식 SK온 유럽 법인장(오른쪽)과 박철민 주헝가리 대사가 18일(현지 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제2회 헝가리 진출 기업 CSR 시상식’에서 SK온의 ‘나눔실천 모범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역 학생 직업교육 등 현지 수요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인 ‘그레이트 뮤직 페스티벌(GMF)’이다. SK온은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 함께 2023년 헝가리 발달장애인 음악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듬해 현지에서 첫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열린 제2회 행사에는 헝가리 정부 주요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취약계층 나눔

소진공, 망원시장서 장보기 행사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20일 개별 기관들에 따르면 소진공인 태연 이사장과 노조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 마포 망원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장보기 행사에서 구입한 물품은 망원1

동 주민센터를 통해 송백·서림·대주·오철경로당 등 인근 4개 경로당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비중이 높은 대전 동구지역에서 독거어르신의 따뜻한 명절과 겨울나기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나눔 봉사활동’도 펼쳤다.

봉사활동에는 소진공 ‘SEMAS 봉사단’ 10명이 참여해 이불과 쌀 10kg를 독거어르신 50가구에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인부와 건강을 챙기는 말벗 봉사를 함께 했다.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 나눔위, 학대피해아동 가정지원

이노비즈협회 산하 이노비즈 나눔위원회가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20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이노비즈 나눔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노비즈와 함께하는 나눔의 여정’을 진행했다. /이노비즈 나눔위원회

LG CNS, 수학으로 미래기술 경쟁력 키운다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참가팀 2.8배↑

LG CNS가 기초 학문으로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대회를 운영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LG CNS는 수학 경진대회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2026’을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수학적최적화는 주어진 자원과 조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 가장 효율적인 답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로봇

등 차세대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술로 꼽힌다. 회사는 지난 2024년부터 대한산업 공학화와 함께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참가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대비 약 2.8배 이상 늘어 958개팀이 참가했으며 참가자 수도 1448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미국, 영국, 중국 등 전세계 55개국이 참가했으며, 국내외 우수 대학인 스탠퍼드, 카네기멜론과 액센추어, IBM 등이 참여했다.

/조민선 기자 msjo@

한화그룹, 협력사에 1850억 조기 지급

추석 앞두고 1580개사 자금 지원

한화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580개 협력사에 약 1850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계열사별 지급 규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25억원, 한화오션 550억원, 한화시스템 245억원, 한화건설부문 140억원 등이다.

한화그룹은 이번 조기 지급으로 협력사들이 성과급과 2·3차 협력사 자재 대금

등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올해 설 명절에도 약 179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협력사의 근로자도 한화의 식구이고, 지역사회도 한화의 사업 터전”이라며 상생경영 원칙인 ‘함께 멀리’를 강조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피아니스트 이정우 에네스쿠 콩쿠르 우승

현대차 정몽구재단 문화예술 장학생인 피아니스트 이정우가 ‘2026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우승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이정우가 현지시간 19일 열린 대회 피아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재단 장학생인 첼리스트 박상혁이 첼로 부문 3위에 올랐다. 정몽구재단 장학생의 입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혁 기자 sh95@



9월

21일 (월)

음력 : 8월 11일

수도권 날씨

18~3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백령도 20/24

파주 15/28

인천 18/28

수원 17/29

평택 16/29

연천 14/29

동두천 14/28

가평 13/28

서울 18/30

양평 15/28

용인 17/2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그네슘, 활성비타민 B군
비타민 E, 감마오리자놀까지

맥스로 콕! 약으로 콕!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 신경통완화 · 육체피로 · 체력저하

마그비 맥스[®]

연질캡슐

“농기계 AX, 부족한 노동력 해결”

강연

감병우 대동 전무

“자율주행보다 자율작업 핵심”



대동그룹이 노동력 문제 해결, 생산성 극대화,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적용한 AI 트랙터, 소형 트랙터 전동화에 집중하고 있다.

1947년 창업, 내년이면 창업 80주년을 맞는 국내의 대표적인 농기계회사가 100년을 향해 달려가며 AX(AI전환)와 GX(녹색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대동 개발부부장 감병우 전무는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글로벌 농기계 시장에서 AX는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 생산성을 높이는게 핵심”이라며 “AX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학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 전무는 “농업은 작업 종류도 다양하고 계절이나 환경에 변수가 많다. 그만큼 학습시켜야 할 데이터가 많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작물의 변화도 많다”면서 “대동의 AI트랙터는 현재 200대 정도를 양산해 전국의 농업 현장에서 쓰이며 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업분야에선 ‘자율주행’보다 ‘자율작업’이 핵심이다. AI가 최적의 자율작업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실제 대동이 선보인 AI 트랙터는 비전 AI가 작업 환경·작업기·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농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트랙터로, 현재 Level 4 수준의 무인 자율 작업에 특화해 있다.

과거의 자율작업 트랙터는 사람이 위도, 경도 등의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해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등을 통해 작업기 자동 인식, 경작지 자동 인식, 장애물 인식, 비상 정지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감 전무는 “경작지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빈곳을 빠짐없이 작업하는 것이다. 현재는 벼 농사를 중심으로 트랙터가 고도화 돼 있고 밀, 콩 등으로 자율작업이 가능하도록 작물들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데이터 기반으로 물류 효율화”

강연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AI가 예측·판단해 물류 합리화”



“디지털 전환(DX)은 사람이 결정하고 시스템이 처리한다면 인공지능 전환(AX)은 인공지능(AI)이 예측하고 맥락을 판단해 시스템이 실행하는 구조다. 데이터를 통해 AI의 역량을 빌려 물류를 더욱 합리화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AX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개최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커머스가 개인화·편안화되고 배송 속도 경쟁이 심화하면서 복잡해진 물류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 AX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커머스의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플랫폼, 자사몰, 소셜미디어를 거쳐 AI 기반 에이전트 커머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매 방식은 달라졌지만 소비자에게 실제 상품을 전달해야 하는 물류의 역할은 오히려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시스템과 형태가 바뀌더라도 누군가는 물건을 갖다줘야 한다”며 “물류가 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돼 있었고 이것이 실행됐기 때문에 커머스도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커머스 확대로 주문이 개인화되면서 물류의 복잡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아워박스는 하루에 보통 20만건의 주문을 소화한다”며 “한 센터에서 시스템 없이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500건을 넘기기 어렵고, 그 이상이 되면 휴먼 에러 때문에 운영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워박스는 주문관리시스템(OMS), 창고관리시스템(WMS) 등을 통합한 자체 물류 플랫폼 ‘샵메이터’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판매 플랫폼과 라스트마일 배송 플랫폼, 택배사 등을 연결해 주문부터 출고·배송까지 정보를 통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와 물동량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자율주행 트럭, 화물운송망으로”

강연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韓 5300km·美 7000km 실제 화물운송”



“2029년에는 전국 단위 자율주행 운송망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자율주행차 한 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이를 실제 화물운송망에 대규모로 투입·운영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실제 화물운송망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마스오토는 대형트럭 자율주행 기업이다. 라이다(LiDAR)와 정밀지도 대신 카메라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는 ‘테슬라식 자율주행’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10대, 미국에서 5대의 자율주행 트럭으로 실제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 노선은 총 5300km로 이 가운데 하루 약 1000km를 운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자율주행 승인도 받았다. 미국에서는 LA 롬비치항에서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LX판토스와 협력한 동부에서 서부로 돌아가는 노선까지 총 7000km 규모다.

장거리 운행의 핵심은 정밀지도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이다. 노 부대표는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실시간 인식해 신규 지역 적용이 쉽다”며 “지난 2023년 미국 진출 당시 한국에서 학습한 AI의 미국 주행에 의문이 많았지만 실제 운행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현재 일반 트럭 250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1000대로 늘려 향후 10억km급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의 핵심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꼽았다. 노 부대표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당 3억5000만~5억원이 드는 구조로는 상용화가 어렵다”며 “마스오토는 대당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dhale@

“물류 혁신, 국가 경쟁력 좌우”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지속가능한 물류 솔루션, 미래 핵심 동력”



‘AX가 이끄는 혁신의 물류 모빌리티’라는 주제에서 보듯 이번 포럼의 화두는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 관점에서 물류의 의미를 잠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살펴보면 핵 사찰 등 여러 명분이 거론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물류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에너지 생명선을 마비시키려는 이란과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만들었던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망과 지중해 해로를 기반으로 제국에 걸맞은 물류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거대한 대륙을 운하로 연결한 중국의 내륙 물류 체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처럼 역대 강대국들은 육·해·공 인프라망을 정비하고 물류의 이동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물류와 이동성 강화는 단순히 해당 산업에 그치지 않고 강대국이 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필요조건이었습니다.

이제 물류 모빌리티 시장은 AI라는 거대한 운영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AI를 통해 더욱 똑똑하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자율주행과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화된 물류 솔루션은 비효율을 줄이고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과 결합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원관희 기자 wkh@

“AI·GX 기반 물류·모빌리티 도약”

축사

임문영 국회의원

“정책·제도적 지원 힘쓸 것”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녹색 전환(GX)의 변화를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물류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논의

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지식의 혁신 전략을 비롯해 물류의 변화와 혁신, 농업 모빌리티의 AI, GX, 뉴노멀에 대응하는 물류 그리고 자율주행이 바꾸는 우리 물류 산업의 미래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AI와 산업 전환은 이제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AI와 GX를 기반으로 우리 물류·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혜은 기자



“기술 발전에 맞춰 제도 바뀌어야”

축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새 기술 시험 위해 복잡한 절차 개선 필요”



물류와 모빌리티는 우리 경제와 일상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기반이자 경제활동의 중요한 축입니다.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시장과 소비자에게 전하고, 소상공인의 하루 장사를 뒷받침하는 일도 이 산업과 맞닿아 있습니다.

포럼의 주제인 ‘AX, 인공지능 전환과 GX, 녹색전환’은 이러한 기반을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과제입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물동량을 예측하고 이동 경로를 효율적으로 짜면 불필요한 운행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탄소 배출도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길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변화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기술을 도입하고 친환경 운송체계로 바꾸는 데 따르는 비용과 인력의 부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에 맞춰 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현장엔 불필요한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가운데 물류와 모빌리티가 우선순위에 밀린 감도 없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시험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과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애로를 직접 듣겠습니다. 물류·모빌리티 분야는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 많은 협력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 기자



▲한미일, 북극권 해양·경제 협력 양해각서 체결 예정
▲中, 기준금리 1년물 LPR 3.0% 5년물 3.5% 16개월째 동결
/사진 뉴시스

▲미군, 카리브해 마약 밀매 의심 선박 격침…4명 사망
▲중국 쓰촨성서 폭우 후 산사태로 5명 사망·실종
중

▲러시아 총선, 푸틴 집권당 70% 이상 의석 확보할 듯
▲獨베를린 돌봄 시설에서 화재…1명 죽고 25명 부상



방한 외국인 급증
쇼핑 등 소비 이어져
유통가 함박웃음
L1



Life

인벤티지랩
약물중독 치료제
美 특허 획득
L2



“한국형 모빌리티 G3 핵심 ‘규모·주권·안전’”

기조강연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AI·반도체 등 산업 유기적 연결 강조
“플랫폼·서비스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제조 경쟁력을 넘어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표준 경쟁력까지 확보해야 한다.”

하성용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 구도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은 완성차 생산량이나 차량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반도체, 데이터, 실증 인프라 등 산업 전반의 역량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하



하성용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전공 교수가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느냐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하 교수는 한국형 모빌리티 G3 전략의 핵심으로 ‘Scale·Sovereignty·Safety’를 제시했다. 즉 2030년까지 충분한 규모의 상용 플랫폼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와 AI에 대한 기술 주권 및 통제력을 갖추는 동시에 국제 수준의 안전성 검증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 시대에는 차량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축적되는 주행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AI·소프트웨어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

망했다. 제조 중심의 강점을 서비스와 데이터,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산업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 교수는 “AI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이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다양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GPU·클라우드 기반 E2E·VLA 교육, 실증 도시를 활용한 리빙랩, SDV·AI 반도체 산학 프로젝트, UAM·스마트시티 기반 3D 모빌리티 프로젝트 등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하 교수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의 ‘차량 제조 강국’에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서비스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AI·소프트웨어와 안전·표준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로봇-물류 결합 흐름… 첨단산업 진입 국면”

기조강연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물류, 기술력 중심 무계이동 진단
“2030년쯤 인간 개입 최소화 될 것”

“2030년쯤이면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기계와 로봇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해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박민영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AI가 물류 산업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 초기 기술들은 이미 물류 운영에서 상용화 단계까지 왔다”며 물류가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산업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류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물류센터 안에서는 로봇이 상품을 옮기고 자동화 설비가 입출고와 분류를 담당한다.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트럭은 아직 실증 단계지만 물류센터 내부에서는 관련 기술이 상용화 수준까지 올라왔



박민영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물류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로봇과 물류가 결합하는 흐름을 ‘로지스틱스(Rogistics·Robot+Logistics)’로 표현했다. 박 교수는 “물류가 과거 수송과 보관 등을 사람이 수행하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과 결합한 첨단산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화는 물류센터 운영 방식도 바꾸고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자동 입출고 설비 등을 활용하면 기존 1만평 규모의 물류센터에서 처리하던 물량을 약 3000평에서도 소화할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상품을 찾아 옮기는 작업이 줄어들면서 공

간 활용도를 높이고 인력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류자동화가 확산하는 배경에는 빠르게 커지는 물류 수요가 있다. 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시장 규모는 2025년 11조3000억달러(약 1경5500조원)에서 2035년 24조3600억달러(약 3경3600조원)로 두 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 확대가 물류 수요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거래 규모는 약 300조원으로 전체 유통시장의 60%에 육박했다. 배송도 대량 운송에서 개별 주문 중심으로 바뀌면서 당일 새벽배송 등 빠른 배송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박 교수는 AI 시대에도 새로운 기술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가 와도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정의돼야 대안을 찾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을 사는 우리가 AI 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상상해야 한다”며 “이러한 집단지성이 물류업계와 대한민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jia_tea@



metro

현장 이모저모



지난 16일 열린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현장에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 낙수효과 등 산업현안 화두

건설·상용차 시장 회복 등 전망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개최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에 참석한 산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호황의 낙수효과부터 물류·상용차 시장 전망, 인공지능 전환(AI)까지 다양한 산업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에도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의 성장 과실을 온전히 나눠 누리기 어려운 산업 구조를 화두에 올렸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VIP 티타임에서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남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장”이라며 “특히 2차, 3차, 4차 벤더로 내려갈수록 더 종속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가 협력업체의 수익성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 옴부즈만은 “대기업이 바빠지면 1차 협력사는 바빠진다”며 “그런데 2차, 3차, 4차까지 내려가면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중소 협력사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부터 4차, 5차 벤더까지 그대로 적용된다”며 “대기업은 돈

을 들여 규제에 맞출 수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소기업은 같은 규제를 맞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의 실적은 좋아져도 2차, 3차, 4차 협력업체는 자동화 투자도 해야 하고 사람도 구해야 하고 환경 규제도 맞춰야 한다”며 “반도체가 뜬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그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물류업계에서는 AI와 피지컬 AI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론됐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물류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빨리 디지털화를 했다”며 “이제는 AI 쪽으로 가야 하고 결국 AI에서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는 실제 사람과 물건, 로봇이나 설비가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피지컬 AI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침체된 건설·상용차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김병욱 볼보트럭코리아 상무는 “한국 경기가 좋지 않아 전체적으로 시장이 줄고 있다”면서도 “건설경기는 지금이 거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으며 내년쯤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택규 한국국제물류협회 상무는 “물류시장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며 “특히 IT와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이승혁기자 sh95@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현장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메트로 한줄뉴스



▲이정후, 스쿠벌 상대 2루타 포함 안타 2개… 열흘 만에 멀티히트
▲UFC 최두호, 뒤통에 1R TKO 패배… 8년 만의 랭킹 재진입 무산 /사진 뉴스스

▲알칸타라, 프로야구 키움과 재계약 합의… 23일 팔꿈치 수술
▲‘가을야구 확정’ 애틀랜타, 연이틀 휴스턴 격파…김하성, 2경기 연속 결장

▲‘6호골·13호 도움’ 원맨쇼 펼친 손흥민, 새너제이전 평점 8.3 ‘MVP’
▲‘골잡이’ 이영준, 아시안게임 소집 전 도움…그라스호퍼는 완패